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확실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투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9월 2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땀흘려 노력하면…

음력 8월 대보름은 한가위 중추절이다. 여름내내 땀흘렸던 오곡백과를 거두어 들이는 수확의 절기다. 우리의 명절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때가 바로 추석이다. 대자연과 조상에게 감사의 치례를 지내며 온 일가친척이 모여 결실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다. 어떤 일을 하든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절차와 과정을 열심히 했을 때만이 만끽할 수 있기때문이다. 가을걷이를 하는 이때에 우리는 각자 내 인생의 가을걷이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볼 일이다. 〈편집자주〉

모든 중생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 속에 하고 싶은 것 따르니 마음 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이나 땀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잡아함경〉

목수는 땅을 고른 뒤 벽돌을 깔고 누각을 짓기 시작했다. 3층누각을 지을 것을 부탁했던 무식한 부자는 목수의 집짓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것은 3층이 아니고 1층이 아닌가." "1층을 먼저 짓고, 그 다음 2층, 그리고 3층을 짓는 것이지요." 목수의 대답에 어리석은 부자는 역정을 내며 말했다. "이 사람아, 나는 3층 누각이 필요하지 1층, 2층은 필요없어. 그러니 아래 두 층은 빼고 3층부터 짓도록 해." 〈백유경〉

인내는 보리의 바른 인(因)이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인내의 결실이다. 〈무바새계경〉

인욕에 잘 머무르면 제일의 즐거움이 되나니 이것은 가장 뛰어난 재물이어서 세간의 보배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제법집요경〉

부처님의 간절하신 가르침을 들은 나운은, 감격해 스스로 힘써서 뼈에 새겨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진해 부드러워지고 인욕을 지녀 대지 같아지니, 식상(識想)이 고요하게 되어 나한도를 얻었다. 〈법구경유경〉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 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원경〉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법과 진리도 얻게 되어 안온하게 쾌락을 얻으리. 〈불역잡아함경〉

믿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네주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버리고 지혜로써 맑고 깨끗하게 되느니라. 〈잡아함경〉

관련기사 2 · 3면

교계최초 노인상담전화 개통 15면
열린마당—불교식 차례를 지내자 2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해인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잘못됐다

식물 184종 누락 · 녹지보존가치 절하…재실시 불가피

호남대 조경학과 오구균교수 주장

해인골프장 사업주인 (주)가야개발이 지난 95년 해인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낮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호남대 오구균교수(조경학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前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해인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과 대책'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해인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문제점'을 통해 "당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자연생태계 조사나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그리고 주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매우 소홀하게 다뤄져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촉구했다.

오교수에 따르면, 가야개발은 골프장예정지의 식물상을 138종으로 보고했으나 지난 7월 (사)시민환경연구소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에서 실시한 생태계부분 조사(연구책임자 이경재 서울시립대교수) 결과 322종으로 나타나 사업자가 184종의 식물을 누락시켰다.

녹지자연도 평가에서도 사업자는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개발을 불허하는 8등급 이상의 녹지는 없다고 보고하면서 자연성이 낮아 보존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8등급 지역이 4.6%, 인공림(6등급)43% 그리고 수령20년 이상의 7등급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교수는 "현재의 풍부한 식물종과 소쩍새(천연기념물 324호) 한국특산 도롱뇽(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물) 등 희귀동물 서식 실태를 고려할 때 보존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현존식생 보고에서 사업자는 골프장 예정지에 6개 식물군락만이 분포한다고 보고했으나, 7월 조사결과에서는 소나무 물오리나무 참나무류 관목림 등 5개 식물군락이 누락되어 있어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오교수는 또 환경영향평가를 공원관리청이 직접 하지 않고 사업자 보고서만을 근거로 환경청과 협의했기 때문에 가야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골프장사업자인 가야개발측은 "92년 환경부로부터 협의 승인된 사항인만큼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윤 기자〉

대행스님 큰법회 3만불자 동참

지난 15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에는 사부대중 3만여명이 동참, 대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행스님은 "일체가 나로인해 생긴것이니 나로부터 풀어야 한다"고 설했다. 〈관련기사 15면〉
〈사진=고영배 기자〉

"개발이익보다 공익우선돼야"

월주스님 '대법원 판결' 앞두고 특별성명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대법원의 가야산골프장 판결을 앞둔 불교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은 개발업자의 이익보다는 공공이익이 앞서야 한다는 국민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월주스님은 이날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60만명에 가까운 국민서명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국민정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에 집착하여 민족의 성지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해인골프장 건설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경 열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발표된 특별성명에서 월주스님은 사법부에 대해 "국민정서와 여론을 무시하고 법조문만의 해석에 의존하여 내리는 판결로는 사법부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에 청하스님

17일 원로회의 추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는 지난 17일 총무원에서 회의를 갖고 전계대화상에 청하(통도사 부방장)스님을 추천했다. 〈인터뷰 3면〉

원로회의는 이날 부의장제도를 2인에서 1인으로 하기로하고 승찬스님원반으로 공석중인 부의장은 선출하지 않았다. 또한 사무처장으로 무착스님을 선임했다.

안건처리에 이어 원로스님들은 교육원의 행자교육원 조기종료에 대해 질타하고 해인사 사태등 제반종무행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 혜암스님을 비롯 석주 고송 비룡 벽암 성수 운경 응답 도원 지종 청하스님이 참석했다.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순례
부산 · 대구지역 불자 초대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2주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성지순례'에 부산 · 대구지역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1996년 10월 3일(목) 오전10시~오후4시
□주 관 : 현대불교 부산지사 · 대구지사
□인솔 현장강의 : 경주남산사랑모임(김덕수 · 김구석씨)
□참가대상 : 초 · 중 · 고교 학생과 부모, 대구 · 부산지역 각 100명 선착순
□출발 및 집결지 : 부산 · 대구 한마음선원 출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집결(오전 10시)
□순례코스 : ①코스:삼릉골-마애육각불-상사암-금오봉-용장사터-절골-용장골
②코스:용장골-절골-용장사터-금오봉-상사암-마애육각불-삼릉골
□참가비 : 1인 1만5천원 □준비물 : 도시락, 모자
□접수처 : 부산지사(051)634-5114 대구지사(053)768-8008

경력 · 신입 사원모집

모집부문	응 시 요 건	인원
Computer Network	-Network Programming - TCP/IP기반 Unix Socket Programming - Windows95 Network Programming -Network Administration 가능자 - Unix 기반 Network Administration - Novell netware 기반 Network Administration -CGI, JAVA Programming 가능자	0명
Computer Programming	-Windows 95 Programming 가능자 -C++ Programming 가능자 -API Programming 가능자	0명
Database Programming	-Oracle, Informix 등 RDBMS Management Programming 능한자 -Database Design 및 Information System Design 경험자	0명

● 전형방법/1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2차 : 면접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각 1부)
● 접수기간/1996년 9월 25일(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
● 접수 · 문의/(110-170)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기획관리부 (02)737-8881
● 이력서 우측상단에 응시부문, 희망 연봉, 긴급연락처 명기바람
현대불교신문사

신속하고 꼼꼼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 · (주)아림DM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 · 발송 · 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법회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없이 한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 · 잡지 · 카탈로그 · 서적 · 카드 등 3종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 · 비닐포장 · 수축포장 · 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

(주) 아림DM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0-29 Tel 803-2445 · Fax 807-5784 · 정기간행물 및 각종 우편물 발송대행 · 자료입력 및 데이타 관리 · DM 프로그램 개발 · 법회보 발송

사 설

전파매체의 새 포교사들

전국방송인 불자연합회가 드디어 창립되었다.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각 방송사의 불교연구회가 연합하여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며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불교교리를 연구하고 신행활동을 펼쳐 온 것이 주춧돌이 되어 방송인 불자 전체가 하나될 수 있는 연합체를 결성한 것은 21세기를 여는 한국불교의 새 얼굴이 아닐 수 없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론매체의 사회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언론매체는 우리의 문화생활을 전반적으로 지배한다.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때까지 켜져있다. 휴식과 도피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안정감과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방송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종교·교육·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러한 방송의 주역들이 불자로서 단일조직을 갖고 법회 등의 신행활동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친목도모에 앞장서게 된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 자부심과 용기,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송인 불자연합회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첫째, 좀 더 조직이 활성화·개방화 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불자 방송인들의 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예를들면, 불교방송이나 불교텔레비전 기타 다른 방송국의 방송인 불자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물론, 수련대회 등을 통하여 내부조직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방송인 불자연합회가 앞장 서기를 기대한다. 각종 퇴폐풍조와 범죄행위로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 도덕성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매체들이 지나친 영리추구의 상업주의에 편승되어 이러한 병든 사회를 계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렁에 빠뜨리는데 공범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불자 방송인들이 앞장서서 부처님의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올바른 대중문화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이 청소년들의 가치관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을 새롭게 인식하자.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부처님이 추구하신 불국정토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불교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현단계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쌓여진 구태의연한 폐습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족문화유산의 정신적 지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는 많은 진통과 갈등도 따르는 법이다. 이러한 불교개혁의 목표가 하루빨리 달성되고 이 땅에 불교중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방송인 불자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언론매체들이 특정 종교를 비호하고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때로는 불교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보도나 드라마도 있었다.

이제 방송인 불자들이 불교의 활동과 현황에 대하여 좀 더 올바르게 알리고, 진실성을 발견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다.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과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하길 바란다.

열린마당 불교식 차례

9월 27일.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다. 1년 중 가장 큰 만월날을 맞아 모든 가정에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과 술을 빚어 차례를 지낸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술대신 차를 올리는 등 불교식 차례를 지내 차례의 본뜻을 찾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불교식 차례에 대한 의의와 방법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차례 불교의식서 비롯…술·고기 피하길

법현 〈태고종 총무부장〉



차례(茶禮)는 본래 불교의 전통 제례이다. 차례를 유교의 전통제례로 알고 있는 이가 많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교의 고유 전통의식인 차례는 새로 만든 차(茶)를 달여 조상님께 처음 올리고 나서 후손들이 모여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飮) 조상들의 공덕을 기리고 후손들의 화합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시절에 따라 설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차례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은 없으나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충담스님이 해마다 삼짓날(음 3월 3일)과 중굿날(음 9월9일)이면 경주 남산 삼화령에 계시는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공양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록상 차례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또 고려시대까지는 모든 의식을 불교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제사도 술대신 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한예로 처녀가 시집오면 사당에 고하는 의식인 고묘(告廟)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처녀가 손수 달인 차를 올리고 나서 그 차를 온가족이 모여 함께 마시면서 며느리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것을 회음이라 했다. 이 회음의식이 오늘날 제사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음복이다.

특히 고려말 유교가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되면서 모든 의식이 유교화되고 차례에서도 차대신 술과 고기를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그 근본 뿌리가 차를 사용했던 불교의식이었으므로 그 이름만이 '차례'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수음식을 차림에 있어서 불교인들은 떡, 나물, 과일, 전, 송편, 등을 준비하고 향, 초, 꽃공양을 같이 하며 차를 꼭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올리고 가능한한 술과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불교제례의식이라 할 수 있다.

삼배 올리고 경전봉독 '영가천도' 기원

동봉 〈곤지암 우리절 주지〉



불교에서는 유교에서처럼 분명하게 '이렇다' 할 제사의식이나 차례의식은 없다. 유교에서는 특히 〈禮記〉라는 책에서 인륜의 대사라 할 수 있는 관혼상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본디 바라문교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 불교 나름대로의 법식을 따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것은 바라문의 전통이 치러야 할 예절에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그 나라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여 불교 특유의 의식을 따로 세우지 않은 것이다.

불교에서 차례를 지낼 때 상을 차리는 것이나 위패를 모시는 것은 유교의 법식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절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교에서의 재배와 달리 삼배를 올린다. 삼배를 올리는 것은 첫째 영가의 정신적 세계를 천도하기 위함이요, 둘째 영가의 육체적 세계를 천도하기 위함이며, 세째 영가의 공간적 세계를 천도하기 위함이다. 공간적 천도란 생사에 윤회하는 사바세계로부터 이를 벗어난 극락세계에로의 공간적 이동을 뜻한다.

잔을 올리는 것도 유교와 마찬가지로 초헌 중헌 종헌으로 세 번 올리며 진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때에 따라 봉송의식을 집행하는데 봉송이란 향단에 와서 흠향한 신들을 고이 돌려보내드린다는 의식이다.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추석차례를 올릴 때, 먼저 음식을 진설한다. 술 대신에 청량음료를 준비하여 육류보다는 청과물을 고루 갖추는 것이 좋다. 향과 초를 갖추고 온 가족이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 경전을 봉독한다. 초헌을 올리고 삼배한 뒤 삼귀의를 하고 〈천수경〉 봉독, 진수와 동시에 중헌을 하고 삼배한 뒤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천도발원문〉을 작성해 읽고 종헌을 한 뒤 삼배로 끝을 맺고 상을 거둔다. 혹은 〈아미타경〉만을 읽어도 좋다. 이는 성묘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렇게 지낸다

술대신 차 올리며 '아미타불' 봉송

우리 가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차례를 불교식으로 지내는 관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 민속명절인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우리 가족은 과일과 떡 등으로 제수음식을 간소하게 장만한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차례상을 마련하고 모두들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차례상앞에 앉는다.

맏딸 반야가 먼저 초와 향을 사른 후 잠시 입정의 시간을 갖는다. 입정이 끝나면 합장한 채 아미타불의 명호(十念)를 외운다.

그리고 부처님과 조상에 절을 올리고 독경을 시작한다. 이어 영가를 청하여 절을 하고 술대신 차(茶)를 올린다. 가족들이 모두 차공양을 마치면 공양과 숭늉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 모두 일어나 봉송인사로 재배하고 위패를 사르는 것으로 모든 차례의식을 마친다.

처음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낼 때는 가족들 모두 어색해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의미있고 뿌듯하다며 자랑할 정도다. 불교의식으로 바꾸어 차례를 치르다보니 예전에 비해 간소해졌을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김상택 · 부천시의회의원〉

조상위패 절에서 모시고 경건하게

우리 가정은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생활해 오고 있다.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경조사를 절에서 지내고 있다. 대학입시기도, 결혼식, 49재도 절에서 지냈다. 모든 경조사를 절에서 장엄한 의식속에서 검소하게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지내게 됐다.

우리 가족은 이번 추석에도 절에서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절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은 조상들의 위패를 절에 모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에서 차례를 지내다보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도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년전만해도 절에서 차례를 지낸다면 주위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으나 점차 차례를 절에서 올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차례상에 술과 고기류 등 산해진미로 푸짐하게 차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법이 가득한 절에서 간소하고 의미있게 치루는 것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또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진성 · 충북 충주시〉

현대만평

박구원



한가위도 부처님과 함께…

목어

정치인들의 합장

30년전 일이다. 속리산 문장대를 오르는 길에 관음암을 참배했다.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3배 올리고 나와 절 마당에 서 계신 스님께 합장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스님이 불러 세웠다. 잠시 기다리라 하시더니 책 한권을 들고 나왔다.

"자네 합장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 내가 이 책을 선물하니 가서 잘 읽어보게."

얼떨결에 받은 낡은 책은 일본사람이 풀어쓴 반야심경 번역서였다. 명쾌한 해설에 반해 읽은후 동행했던 친구에게 다시 선물했다.

오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언의 인사 '합장'에 대해 짚어보고 싶어서다. 합장은 두 손바닥을 가슴앞에 모아서 제불 보살을 공경·예배·찬탄하는 불교의 예법이다. 이때에는 합장이 경례의 뜻을 넘어 만법을 한마음의 경지로 모으는 수행의 의미도 지닌다.

〈관무량수경〉에는 수행자가 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 등 삼존께 합장하고 제불을 찬탄하면 일념동안에 극락국 칠보의 연못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합장은 자기를 낮추면서 자신의 진실과 상대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불자들의 인사도 합장한다. 같은 합장이라도 눈여겨 보면 자세가 다양하다. 종교는 다른데 합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알려진 불자이면서도 서툰 분이 있다. 엉성한 모습도 있고 엄숙스러워 건성하는 듯한 합장도 있다.

생각해 본다. '정치계절'이 아닌 평소에도 요즘처럼 조계사 법당을 자주 찾고 제방의 대덕스님들을 수시로 친견했더라면 상대방이 감응하는 '마음의 합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분은 불교의 정치관을 체득했을 것이고 자신의 합장이 '서약'임을 알 것이다. 불자들은 그런 정치인을 보는 안목을 갖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 법회가 지난 15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성대히 봉행됐습니다.

비쁘신 가운데도 동참하신 대덕 스님들과 각계 인사들께 우선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오니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9월 16일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신라천년의 옛서울인 경주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이 될 포항의 접점에 위치한 첨단과학과 교양교육의 요람





2천만 불자들의 염원 속에 금년 3월, 신라천년의 옛서울 경주에서
개교한 대한불교진각종 종립 위덕대학교는, 이 땅의 두번째 종립 종합대학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불교흥왕과 불국정토건설은 인재불사를 통하여 이룩될 수밖에 없다는 시대적 자각이
우리 위덕대학교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차분하면서도 자긍심에 가득 찬
대학경영,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작업 진행,
해외 유수대학과의 실제적인 학술교류협정 체결 등은
우리 대학이 한학기 동안 거둔 실질적인 성취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긴실한 대학발전을 추구하는 위덕대학교는,
'97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약간명의 교수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불교정신에 투철한 많은 불자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종립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교수초빙

1. 초빙분야 및 인원

학 과	세 부 전 공 분 야	초 빙 인 원
법 학 과	• 사법(私法)	각 학과별 약간명
경 제 학 과	• 계량경제학 • 수리경제학	
경 영 학 과	• 회계학	
제어계측공학과	• 제어공학 • 전력전자공학 • 로보트공학	
전자재료공학과	• 회로 및 시스템	
통 신 공 학 과	• 이동통신 • 영상신호처리 • 광통신	
전 자 계 산 학 과	• 데이타베이스 • 운영체제	
전 기 공 학 과	• 전기공학 • 전력공학	

2. 자격요건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
나. 본 대학에 임용후 경주 · 포항지역에 거주 가능한 분
다. 본 대학의 건학이념인 불교 진각종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분

3. 제출서류
가. 국문이력서 1부 (영문표시된 부착, 우측 상단에 지원학과, 세부전공, 전화번호 명기)
나.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다. 박사학위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92. 1. 1일 이후 발표한 연구실적목록(제목, 연구지, 발표년월일, 학술지명, 논문개요) 및 연구실적물 각 1편
바. 박사학위논문 1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1996년 10월 14일(월) ~ 10월 26일(토)
나. 제출처 : 위덕대학교 교학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번지(우 : 780-910)
TEL. (0561)760-1011~6
FAX. (0561)760-1019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5. 기타사항
가. 서류심사후 1차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신규채용 교수는 2년간의 계약체결로 임용함.
다.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할 것.
라. 본 대학의 Internet Home page에는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www.uduk.ac.kr) (e-mail address : kryu@vro.uduk.ac.kr)



"지계는 인욕이 최고"

인터뷰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

"출가자 부처님을 부모님처럼 재가자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오계지키기' 범국민 생활규범으로

"계(戒)는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모체입니다. 따라서 계를 수지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씨앗을 마음밭에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7일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전계대화상으로 추천된 청하스님은 '계율을 깨달음의 근본으로 삼아 정진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스님은 "역사적으로 불법이 흥할 때는 계율을 존중하고 수호했으며 불법이 쇠퇴할 때 계율이 잘 지켜지지 않고 문란해 졌다"며 "요즈음은 어느때보다도 계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계만 지켜도 나라가 바로서고 불법이 흥할것이다"고 확신했다. 술 먹지 않으면 교통사고 줄어들고, 음행하지 않으면 문란해진 사회도덕이 바로설 수 있으니 오계지키기를 범국민적 생활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계사라는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온화한 미소속에 간간이 좌중을 웃음바다로 이끌기도 한다.

"저는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큰일입니다. 계는 인욕이 최고 아닙니까. 불평이 있어도 참고 미운것도 참고, 먹는 것 자는 것 어느것 할것없이 참아야 해요. 그런데 전계대화상이라는 걸망이 주어져 남들보다 앞장서서 인욕해야하니 이보다 더한 구속이 어디있겠습니까."

한바탕 웃음이 가시고, 스님은 "새로 부처님제자가 되는 초심자를 위해 '충효(忠孝)'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출가자는 부처님을 부모님처럼, 재가자는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한 "재가불자들이 계를 받은뒤 지키지 못하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 수계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계를 앉아 받고 서서 파해도 공덕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공덕을 뜻하는 것으로 자식으로서 허물은 있을수 있다"고 지계의 여유로움을 설명했다.

앞으로 3년간 계법을 전하는 최고 계사로 활동하게 될 청하스님은 월하스님을 은사로 1946년 입산, 50년 통도사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4년부터 4대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65년 조계사 주지 67년 통도사주지를 거쳐 72년부터 5년간 홍콩 홍법원장을 지냈다.

또한 통도사 영축총림에서 20여년간 전계화상으로 계법을 전하고 있으며 현재 통도사 부방장으로 있다.

이준엽 기자

"가야산 환경변화 있을 수 없다"

오구균교수 40여만평 국가 매입등 법적 보호 대책을

이태녕박사 해인사·백운동 골프장부지 '같은 기상권'

해인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한 '가야산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7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생태계분야와 문화재분야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이태녕박사



◇오구균교수



◇가야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및 팔만대장경 보존을 위해 해인골프장 예정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야산 국립공원 보존 심포지엄 지상중계

오구균교수는 생태계분야 주제발표 '해인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문제점'을 통해 92년 환경처에 제출한 가야개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대상지역의 생태분포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주장했다.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인골프장 건설이 팔만대장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팔만대장경 보존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떠한 환경변화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허권 문화부장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명기하고 이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법적 보호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수석연구원은 대법에서 패소하더라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 분야 (오구균교수 발표)

해인골프장 예정부지는 가야산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2%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식물종들이 생육하고 있다. 야생조류는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 보호받는 소쩍새와 쏙독새 청호반새 휘파람새 흰배지바귀 및 박새 등이, 파충류는 누룩뱀, 양서류는 환경부지정 특정야생동물인 도룡뇽과 북방산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어 서식처 보호가 필요하다.

개발업자는 골프장 예정지의 식물상을 59과 138종으로 조사 보고한 반면, 올 7월 (사)시민환경연구소 등에서 조사한 결과는 81과 322종으로 사업자는 184종의 식물을 누락했다. 사업자가 의뢰한 조사자들의 전문성이 없었거나 아니면 고의로 식물의 풍부도를 낮게 보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자가 평가한 녹지자연도는 인공림인 6등급을 87%로, 보존가치가 있는 8등급 이상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수령 20년 이상의 7등급지역이 43%,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개발이 불허되는 8등급 지역이 4.6%로 나타났다. 사업자측이 녹지자연도를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

현존식생 보고에서도 사업자측은 소나무군락 물오리나무군락 등 11개 식물군락을 누락한 채 6개 식물군락만이 분포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소나무군락(19.7%)과 물오리나무군락(7.7%)이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누락한 것은 가야개발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해인골프장 건설은 가야산국립공원의 전체 생물다양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개정한 자연공원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립공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40여만평에 이르는 골프장 예정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국유화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 분야 (이태녕교수 발표)

고려 팔만대장경은 고종 23년(1236년) 대몽항쟁 와중에서 16년이란 간난의 세월끝에 완성된 신앙의 결정체이며, 민족적 자긍 자주의식이 표출된 상징물이다. 대장경판은 불교의 성스러운 숭상의 대상물인 법보로서 양질에 있어서 완전무결에 가깝게 745년간 계승 보존된 세계 유일무이의 문화재이다. 대장경판은 세계가 놀랄만한 자연과 잘 조화된 고려시대 이래의 과학과 기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광중의 자외선은 이끼 곰팡이 곤충 식물 등 생물의 번식을 막는 작용이 있으며, 일광중의 적외선은 찬 바닥 흙면을 데워서 공기의 대류를 촉진시켜 건물내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일부는 목재를 변질시킨다. 이 이율배반적인 일광의 작용은 독특한 경사분지와 기상의 자연환경에 조화되게끔 설계된 장경각과 판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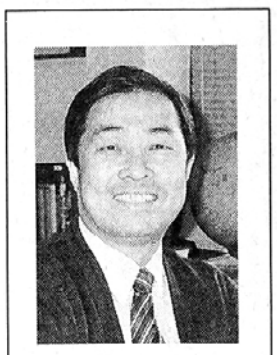
이렇게 마련된 이상적인 환경에 미소한 영향이라도 미칠 어떠한 환경변화도 팔만대장경 보존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 만일 해인사 주변의 대기의 습도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 지표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대규모의 자연파괴 시도는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할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골프장 예정지인 백운동과 해인사는 같은 기상권이다. 대장경 보존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성운 기자

시론

보름달을 보는 마음



전 정 봉
〈연세대 교수·경영학〉

이제 얼마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인 한가위이다. 이런 풍요로운 날, 인심이 일년중 가장 후하다는 날을 맞이하면서, 왠지 금년엔 그 풍년스러운 인심에 내심, 안스러운 감이 들기도 하다.

연일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이야기들을 보노라면 더욱 그러한 감정을 가릴수 없다.

최근의 우리경제는 소비용 구조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다. 고임금, 고금리, 높은 땅값 그리고 높은 유통과 물류비용, 국민들의 높은 과소비, 거기에다가 높은 정부의 규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심한 고(高) 자에대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高자 열병 앓고있는 경제

경제원론에 나오는 3대 생산요소인 노동·자본·토지가 무색하게 된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경제문제를 생각 해보게 된다.

우리경제가 어렵다. 성장도, 물가도, 국제수지도 정상궤도를 이탈해서 질주하고 있는것 같다.

기업들은 우리가 불모의 땅이라도 되는지, 해외탈출구을 벌이고 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모두 텅빈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해 본다.

경제가 어려워 지니까 진단도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치와 사회적분위기가 기업마인드를 위축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은 경쟁력의 약화라는 구조에서 찾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 본다.

이를테면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근원이기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분명 우리의 경제는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살아나가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런 병을 치료하려고 하기 전에 자세히, 그 병의 원인을 관찰해 보자.

전경련에서 주요그룹들이 임금을 동결한다고 선언을 했다. 사실 우리의 임금구조를 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또는 일을 하든 안하든 편중했다. 그러니 생산성을 반영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인건비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제품들이 기술면에서나 품질면에서 좋으냐하면, 그렇지 못하다. 상품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효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제 국제 시장에서 성장하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우리의 경제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돈만벌면 그만이라는 천민자본주의에 젖은 일부 기업주나, 당장 오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를 해온 경영자들이 오늘과 같은 문제를 잉태 시켰다고 본다.

거기에 고도성장기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근로계층들의 사고 또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은 그래도 정부이다.

경제가 어렵게 될때까지, 이러한 사실에대해 국민을 위한 생각 보다는 우리나라의 홍보에만 전력을 다하면서, 임금의 급상승을 유발시켰다고 본다. 수출 세계 몇위니, 올림픽 몇위니 하는 구시대적 등수를 통한 홍보를 함으로서 마치 우리가 실제 세계의 몇위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우리 모두가 임금의 상승을 위해 힘을 모았었으며, 그 결과는 과소비까지 이어졌던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가롭게 누구를 탓하거나 수수방관을 해서는 안된다.

식량난 北동포에 관심을

시장경제 원리와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와 사고를 빨리 버리고 논리와 원칙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제는 풍요로운 중추절도 다가오고 있으니, 보름달 같은 넓고 둥근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한번 해 볼때가 아닌가 한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북한국민에 비할수 있겠는가.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말할것 같으면, 우리민족같이 잘 극복하는 민족도 없다. 차제에 식량대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북녘동포를 한번더 상각해 보자.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러면 중추절, 한가위 보름달을 보는 우리의 가슴이 확 트일 것이다.

해인강원 총동문회 결의문

우리 해인 강원 총동문회원 일동은 평소 해인강원과 총림의 법륜상전을 기원하며 지내오던중 뜻하지 않은 해인강원의 폐강을 당하여 해인총림의 원융살림회복과 강원의 정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총림방장스님은 주지 이하 7직을 즉각 해임 하실 것.
   - 해임 되지 않고 전개되는 사태에 대하여 그 책임은 방장스님에게 있다.
1. 중앙총회는 총림의 원융체제가 이룩될 수 있도록 총림법을 개정하라.
1. 총무원과 교육원은 안정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법을 강화하라.
1. 해인사 사중은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매진하라.
1. 이상의 결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800여 해인강원 총동문들은 해인강원 정상화와 총림의 원융살림체제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불기 2540(1996)년 9월 17일

해인강원 총동문회장 보광외 회원일동

법회 안내

노적사(02)386-4198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매월 18일(음) 오전11시

수타사(0366)33-6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석왕사(0361)51-5040
신도법회 매월 1·15일 오전11시
강원불교대학강좌 매주 화·목 오전11시 오후7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보문사(0361)57-7070
춘천불교청년회 목 오후7시30분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청평사(0361)54-1092
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정법사(0361)54-7194
일반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정왕사(0361)262-1085
일반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삼운사(0361)241-13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생회법회 셋째 일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월 21일 오전11시
신도법회 매주 토 오후8시30분

단봉사(0361)261-0436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삼개사(0391)43-9234
정기법회 매월 14일 오전11시
토요법회 매주 토 오전11시
운전사 안전운전 불공 매월 24일(음) 오전11시

환림사(062)375-76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자재암포교당(0351)865-514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5시

능해정사(032)519-5552
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월 첫째 셋째주 일 오후2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해인골프장 반대 초당적 협력"

신한국당 **함종한**·국민회의 **박상규** 물자회장


◇함종한의원


◇박상규의원

각 정당불자회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신한국당 불교신도회장 함종한의원의 취임법회가, 이틀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 창립법회가 봉행됐다.

함종한의원은 "불교는 사회서원의 염원처럼 행동하는 종교"라며 "신한국당불교신도회는 우리나라를 불국정토로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연등회장 박상규의원은 "오탁악세의 말법시대를 비추는 연등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새연등회의 창립취지"라며 "초심자의 각오로 정당불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두 정당 불자회장은 해인골프장 건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의원은 가야산 전체를 해인사의 경내로 보아야 한다며 "초당적 입장에서 골프장건설 반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사찰은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수행성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도량까지 침범하는 개발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대구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사장 **원 명스님**

"공사중단 불교회관 곧 완공"

"승·재가의 뜻을 하나로 결집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총회에서 제3대 이사장에 추대된 원명스님(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은 지난 94년1월부터 2년9개월간이나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된 불교회관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의지를 밝혔다.

사원주지연합회 총무부장 태일스님을 단장으로 한 인수팀을 구성, 곧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前실무책임자가 인수인계도 끝내기전에 사표를 낸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한뒤 "각 신행단체의 증지를 모아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은 舊사원주지연합회가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88년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5월로 前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이사장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사도 재개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됐었다. 이에 대구지역 9개 신행단체가 합동으로 '지역의 교계 대덕 스님들께 올립니다'는 호소문을 지난 8월23일 작성하여 여론화작업에 나선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임원등 참석한 12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스님은 인수인계와 더불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스님은 "불교회관은 우리 모두의 소유인 만큼 누가 해줄것이라고 믿고 의지하지 말고 전부가 주인이 되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게시판

강좌 보현행원품=서초정토법당(원장 법륜)은 가을맞이 '화엄경 보현행원품'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한정섭 법사(불교정신문화원장)가 강의하며 누구나 동참가능. (02)522-2841

카운슬러대학=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는 제11기 카운슬러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상담원활동에 관심있는 모든 남녀. (02)737-7378

지눌사상=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이 지난 13일부터 보조국사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I 〉와 유학사상의 근본인 〈논어 I 〉 강좌를 개설했다. 강의는 정병조교수(동국대)와 진성규교수(중앙대)가 각각 맡고 있으며, 3개월간 진행된다. (02)3411-6167

봉원사 불교교양대학=태고종 신촌 봉원사 불교교양대학은 3개월과정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11일까지며 불자면 누구나 입학가능. (02)392-3007

차생활 행다법=한국차문화협회 다례학당 설예원(원장 이립)은 제1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차의 정의, 차생활 예절, 차의 효능, 올바른 행다법 등. (0652)83-0640

알선 간병인=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간병인교육을 실시하여 3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간병·산모간호·파출부를 알선하고 있다. (042)633-1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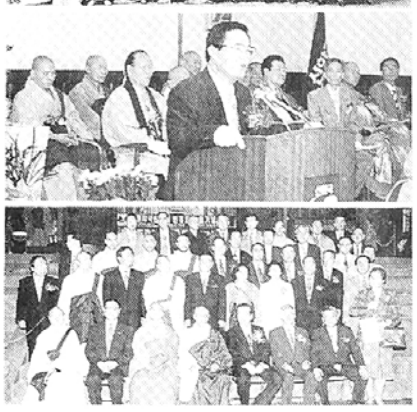
순례 석불연구회=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오는 10월20일 오전8시에 떠날 정기답사 회원을 모집한다. 장소는 여주 신륵사, 목아박물관, 여주 석불. 선착순 40명. (02)760-5171

이전 불교대구방송은 지난 9일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56-1 건각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053)427-5114
팩스:(053)427-4433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38-3 舊정순호산부인과 건물에 교육부와 불학연구소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했다. (02)732-4923

교수불지연합회도 같은 건물 203호로 10월초 이전한다.





불자회 창립등 바쁜 정치권 佛心

제15대 국회정각회 회장단 취임법회가 지난 13일 조계사서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서석재 정각회장 정각회부회장인 박상규(국민회의) 하순봉(신한국)의원 김명윤의원과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사진 上). 또 신한국당불교신도회 함종한회장 취임법회가 지난 14일 신한국당 지하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성법 해인사주지, 락혜 진각종통리원장등 1백5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사진 中).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도 지난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파계사에 태교교실 개설



성우 파계사 주지는 오는 5일(오후2~3시30분), 6일(오후2~3시30분) 이틀간 진동루에서 제1회 태교교실을 개설한다.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태교방법을 소개하는 이번 태교교실은 무료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053)984-4550

'제1회 줄넘기 축제' 열어



도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스님은 지난 21일 구로중학교 체육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1회 줄넘기 축제'를 개최했다.

다베 印 델리총독과 환담



성오 범어사주지는 지난 14일 다베 인도 델리총독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불교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토의 전화' 성지순례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지난 17일 정토의전화 회원을 대상으로 송광사일대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힌탄강 수해지역 위문

공덕 한국불교승가대학원 책임교수스님은 지난 18일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 한탄강수해지역을 방문하고 운동화 식용유 밀가루 등 위문품을 전달, 지역주민을 격려했다.

한가족봉사단 환경캠페인



현중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기획실장스님은 지난 15일 북한산에서 한가족봉사단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집출판 관련 독일 방문



고은시인(본지 상임고문)은 명문출판사 '주어캠프' 초청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베를린 프랑크프르트 뮌헨등 6개 도시를 순방한다. 고시인은 지난 4월 동 출판사에서 독일어판 시집을 낸 바 있다.

김흥국씨 초청 '불교…' 강연

혜인 삼화불교대학 학장스님은 오는 10월2일 21세기 포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불자가수회장 김흥국씨를 초청, '불교와 축구'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다.

밀양 홍제중 교장 부임

김봉식 전 명성여고 교감이 지난 1일 동국학원 밀양 홍제중학교 제9대 교장에 부임했다.

경향신문사 정보사업부 근무



이 정 씨(前 한국일보사 뉴미디어부)가 지난 18일부터 경향신문사 정보사업본부 차장대우로 근무하고 있다.

출판기획차 일시 귀국



김 형 근 '미주현대불교' 편집인은 오는 10월27일 미주현대불교 창간 7주년 행사추진과 美 삼바라출판사와의 불교출판기획차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시 귀국했다.



법련사 불일범종 타종법회

법련사(회주 현호)는 지난 13일 영산대법전에서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과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등참한 가운데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불일범종 타종법회를 봉행했다. 법련사는 타종을 기념해 13일부터 15일까지 월탄스님과 고산스님(쌍계사 조실)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을 초청, 특별법회와 기도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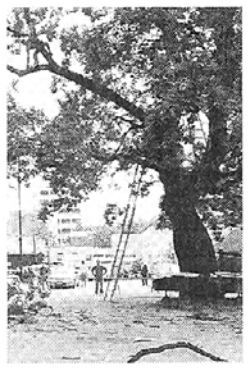
조계종 봉축기획단 사무실 개소

조계종 봉축기획단(단장 혜창)은 지난 17일 조계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봉행했다.

대불련사무실 2층에 마련된 봉축기획단 사무실은 25평규모 조립식건물로 봉축기획단과 조계종 각급신도회구성실무추진단이 입주했다.

봉축기획단 사무실은 금년부터 봉축기획단이 상설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마련됐다.

화제 400년생 조계사 회화나무 '수술'



포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앞 회화나무가 외과 수술을 받았다. 82년 서울시로부터 보호수(1-1-2)로 지정받은 이나무는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썩은 부위를 치료하는 외과수술과 뿌리에 활력제를 뿌려주는 치료를 받았다.

조계사 회화나무는 수령 4백년, 높이 24m 둘레 3.7m로 부처님오신날에는 이 나무를 중심으로 오색연등이 찬란하게 밝혀진다.

성 명 서

- 골프장 전면백지화 원만성취 및 해인총림 수호를 촉구하며 -

해인사 산너머 "해인"이란 이름의 "해인골프장" 법정싸움이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해인사 사중은 해인총림대책위가 처음 발족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골프장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오던 학인 중심의 **〈집행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해산공고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그야말로 해인사 사중은 **골프장 반대운동에 대한 방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인사 사중은 새로운 "골프장 반대 집행위원회"를 주먹구구식으로 꾸렸으며, 집행위원장으로는 그동안 골프장 반대운동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무소임의 성견스님을 내정했고, 5명의 집행위원 간사중의 한명으로는 **"행자교육원 술의사"인 스님**을 본인의 의사도 묻기도 전에 선임해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대부분의 스님들은 "골프장 반대운동 전후사정"을 잘 모를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무관하게 선임되었으며,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이제 해인총림대책위의 집행위원회가 대외적으로는 두개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최악의 여론 형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9월 14일 현재 60만명 서명인원을 육박하여 대대적인 여론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왜 **해인사 사중은 골프장반대운동을 악랄하게 방해하는가?**

지난 고등법원에서 7차례의 심리가 열리는 도중, 사업자측은 법정에서 조차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었다. **"해인사에서 골프장 반대운동은 젊은학인 일부의 스님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른스님들은 찬성하고 있다."** 더군다나, 골프장 사업주 역시 MBC-TV등 언론매체와 인터뷰함에 있어서, 법정발언과 똑같은 말을 자신있게 하였다. 과연 그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그처럼 당당하고 자신있게 발언하겠는가?

한국불교의 얼굴인 해인사에 골프장 반대운동을 방해하는 **현 해인사 종무체계**는 2천만 불교도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되어야 하며, **하루속히 해인사에서 완전히 퇴진해야만 한다.**

더욱이, 최근 발발하고 있는 **해인사 사중의 상식이하의 돌발행동** 들은 대내외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총림의 기본구조는 강원과 율원 그리고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선원에서만 20여년을 정진하던 한 주스님들을 내쫓더니, 이제는 강원의 강주, 학감스님 그리고 강원 전 입승(일경스님)과 골프장 반대 집행위원장(지산스님)을 해임 및 퇴방공고를 발표하여, 학인승려들의 골프장 반대운동에 대한 결정적 쇄기를 박았다. 급기야 강원을 "휴강"이 아닌 "폐강"을 단행**함으로써, 종무소측이 원하던 원치않던 외형적으로 **해인총림 구조자체까지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폐강〉발표 공고이후, 사중은 정체불명의 **속인까지 대동하여 강원의 주요 요사체인 '적묵당'과 '궁현당'을 폐쇄하려다 학인들의 강력한 저지**로 물러났으며, 강원내 10개의 **전화선을 모두 절단**하는 비열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폐강〉이라는 무리한 종무행정은 총림의 종무행정 담당소임자로서의 **업무능력을 도저히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경전을 한창 배우고 있는 후납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종단의 3대 숙업중의 하나인 "도제양성"과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실사, 〈폐강〉조치가 불가피했다손 치더라도, **현재 해인사에서 "행자교육원"이 개원중**인것을 감안할 때,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해인강원 폐강〉은 도저히 상식이하 상식밖의 행위이다.

〈행자교육원〉 행사일정을 모두 이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 행자님들은 급작스럽게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해인사의 파행적인 종무행정은 급기야, 이제 막 출가한 초심자들의 **〈행자교육〉까지도 조기종료**라는 불명예를 낳게 하였다. 이 모든 파행적인 행태들은, 해인사 최고의 어른이신 혜암 방장 스님께서 대중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보다는 종무소 소임자라는 권위에 사로잡힌 **권속문중 일부의 주의주장에만 편향된 탓**이다.

더 이상의 파행적인 종무행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혜암 **방장 스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성법(주지)와 무착(기획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해인사가 특징으로하는 "원융살림"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해인사를 총림 본연의 자리로 회귀시켜야만 한다.

더군다나 **성법**은 해인사에 주지로 발령받기 위해, **호적변경**을 통해 나이를 올리는등 도덕성이 의심스러우며, 청정승려로서 한국불교의 얼굴인 해인사의 주지로 임명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무착**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골프장사업자와의 향응 및 금품수수설이 있으며, **골프장반대운동 방해활동 및 강원폐강, 선원폐쇄**에 앞장선 자로서 산문출송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키 위해 **단식정진**에 돌입하며, 향후 〈해인총림〉과 〈정법수호〉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점차 수위높은 대응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해인사 사중은 새로운 골프장 반대 집행위원회를 즉각 철회하고, 더 이상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에 대한 방해활동을 중단하라.**
1. **방장 스님은 최근 파행적인 종무행정을 감행하는 것은 물론 골프장 반대운동을 와해하는 성법(주지), 무착(기획실장), 성견(교무소임자)를 즉각 해임시켜야만 한다.**
1. **"강원"과 "선원"을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파괴하는 〈총림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1. **강원이 강원으로써 안전한 교육풍토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원 및 총무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제도 개혁을 조속히 시행하라.**

불기 2540년 9월 14일

해인사 총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진
집행위원장 지산

'白鷺의 법음' 보고 듣길 발원

산문밖의 禪

백로사진 25년 허형구 변호사



청산은 드높고
하늘빛은 나를 반겨
평온하든 험하든
그 마음 변치않고
사시로 푸르러
언제나 한빛이어라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낡고 삭아버리는 것이 정한 이치지만 자연은 언제나 한 빛을 잃지 않는다. 그 한 빛은 수행자나 예술인들에게 영원한 화두가 되기도 한다.

"자연을 통해 '나'라는 실체를 지배하는 마음, 그 마음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수행아닐까?"

70성상의 연륜이 자연을 닮기라도 한 듯 조용하고도 찬찬히 자신의 불교관을 풀어내는 허형구변호사. 법무부장관을 지내기도 한 그는 현재 변호사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노익장은 사진 찍는 일에 열정을 바치는 대목에서 더욱 빛난다.

허변호사는 얼마전 충무로에서 백로를 소재로한 세 번째 사진전을 가졌다.

법관인 그가 사진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전적으로 자연을 자연으로 보지 못한 중생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한다.

25년전 허변호사는 시대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부담스러울으로 여겨질만큼 번민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다 '나는 뭣고'라는 길지 않은 화두를 들게 되고 화두를 짊어지고 목적지없는 길을 떠나기를 수차례.

"수도 없는 길을 떠나면서 모든 겉가지를 벗겨버린 가장 진실하고도 거리낌없는 자연과 만날 수 있었어. 그 순간 나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모두 붙잡아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셔터를 쉴새 없이 눌러댔지. 카메라와 인연이 된 계기가 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중생의 집착이었나 싶어 부끄러워. 자연은 외적인 것 보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법인데…."

허변호사는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변형시키는 인간이 아니라 서로 포용하고 어깨동무하는 자연의 한부분이어야 한다는 지혜를 얻었다.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허변호사의 모습이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정미묘한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변호사 일땐 변호사대로, 사진을 찍을땐 사진작가의 모습대로 자연스럽기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힘을 지녔다. 마치 수십년의 어려운 수행 끝에 견성(見性)의 단계에 도달한 구도자가 하나의 집념아래 겪어 온 고난의 과정을 법열의 단계로 승화시키듯.

"내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연될 수 있을 때 뿐이야."

허변호사를 마주하고 있는 동안은 누구나 이미 법관도 생활인도 아닌, 삼매에 빠져 자연과 자신이 하나이기를 갈구하는 구도자의 풍모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백로를 닮아 있음을 알게 된다.

25년동안 카메라를 메고 '떠나기'를 계속해 온 그는 백로를 담아내는데 전력해 왔다. 고고하면서도 거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울곧아 보이는 백로의 자태가 일평생 법관의 길을 걸어 온 그에게 말없는 스승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릴적 우리 농촌마을 뒷동산이나 푸른 들판에는 언제나 백로가 푸른 창공을 힘차게 비상하거나 정다운 모습으로 유희하며 짝을 이루고 있었지. 자연을 병풍삼아 정겹게 노니는 백로를 보면서 나 아닌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배웠고, 자유인을 꿈꿨던 것 같아."

"길을 떠나면 진실한 자연과 만나고 자연의 순리를 모두 담아 놓으려 쉴새없이 셔터를 눌러 댔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중생의 집착인가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백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의 모습이 어느새 소나무 가지에 앉아 창공을 바라보는 백로를 연상케 한다. 무아지경에 빠진 자유인의 모습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허변호사는 여유가 있을때면 백로를 찾아 나선다. 우리나라 백로 서식처는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수 많은 여행을 했다. 그가 여행을 그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그동안 찍었던 백로의 모습에 스스로 얽매여 상(相) 아닌 상을 세워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선천적인 구도열정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백로의 수많은 움직임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렌즈에 집중시키고 그 속에 모든 삶을 응축시키는 경지를 체험 하고 싶어. 모든 형상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할 줄 아는 자유로움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아닐까? 내 사진을 보며 부처님이 설하신 제행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를 향한 나의 메시지거든."

허변호사는 어떤 자리에서건 禪을 얘기하길 꺼린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부인과 함께 1년에 몇차례 절에 가는 것이 고작인 자신이 '선적인 삶'을 얘기한다는 것은 선사들의 문답과 기행(奇行)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현장을 선방으로 여기고 치열하게 정진하듯 법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진작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이다.

허변호사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요란스럽지도 않고, 질박한 모습으로 은근한 멋을 풍기는 한국의 대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묘음(妙音)을 듣는 법을 알고 있다. 그 소리를 전해 주는 것이 바로 백로들이다. 그래서 그의 렌즈는 백로의 외형을 담는 것 보다는 자연 속의 법음을 담는 도구가 된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그 법에서 해방되기가 쉽지 않다. 그가 다루는 법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규정짓는 것이라면 그가 찾는 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마침내는 해탈케 하는 '법중의 법'이다. 언젠가는 백로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카메라를 잡지 않아도 그 '진짜배기 법'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고희의 나이를 젊게 만들고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저 부처님을 닮기 위한 내 나름의 노력이지."

도필선 기자

천도재는 왜 하는 것입니까

문 조상에게 차례상 올리고 기일이 되어서 제사지내고 때로는 천도재를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상을 공경하는 뜻은 알겠는데 이미 가시고 안계신 분이니 그냥 마음으로 공경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홍정희 · 경남 양산군 양산읍〉

답 사람은 죽어서 몸이 없어진다해도 생전의 의식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 차원 그대로 인체 물을 만나면 빠져 죽을까 겁내고 불을 만나면 타 죽을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죽어서도 그 업식은 내 자식 내 부모에 착을 둡니다. 사람들은 그 업식을, 영식이라 해도 됩니다만 그걸 보지 못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봅니다. 어떤 형상으로 보는게 아니라 생전의 마음자리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자리를 밝게 이끌어 주기도 하고 마음자리에서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천도재를 지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식의 마음자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영식이 생전의 마음자리 그대로이니 자손들도 생전에 모시던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과 마음으로 통신이 되어 조상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조상님 마음과 하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음의 공경이 즉발로 통하긴 하겠지만 도리를 투철히 알지 못하고 그저 생각만으로 그렇겠거니 한다면 서로 통하질 않아서 빈 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히 상 차릴 형편이 못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야 마음으로 하면 되지 하고 건성으로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도리를 알고보면 내 마음안에 부모 조상님이 다 계시고 보살 신중도 다 있으니 삶이 그대로 부모 모시는 제사요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님의 참근본을 알 때에 그렇다는 얘기이고 다만 조상님의 중생적 모습만 본다면 마음으로 나와 조상이 하나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구보다도 내가 조상님을 잘알고 돌아가신 것도 잘 알기에 내가 조상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잡이로서 천도재도 지내고 때를 맞춰 상 차려놓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이 도리를 아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일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조상공경도 그렇게 하면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통하기만 하면야 마음의 떡 하나, 마음의 촛불 하나로도 한자리에 들게 되겠지요.

생전 천도가 더 좋은지요

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을 떠나고 나면 공부할 수가 없으니 살아서 이 육신 있을때 공부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도하는 것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천도재할 게 아니라 생전에 천도해야 더 빠르고 좋지 않을런지요.

〈하인경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답 잘 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어디엘 가나 누구를 만나거나 간에 마음공부 하라고 신신당부하지 않던가요? 부모나 자식이 안하더라도 본인만이라도 하라, 그러면 부모 주인공이나 자식 주인공이나 다 내 주인공과 한 뿌리 한 근본이니 내가 뿌리에 물을 주면 거기에 붙은 가지와 잎이 다 싱싱해지듯이 마음으로 통신이 된다, 그래서 서로서로 몸도 건강해지고 지혜도 열리고… 얼마나 좋은 법인지 아느냐 하고 몇백번이라도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사람들끼리 인연따라 모여사는 모습을 보면 끼리끼리 만난단 말입니다. 금은 금끼리 만나고 은은 은끼리 만나고 깡통은 깡통끼리 만납니다. 그게 업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비록 깡통끼리 만났다 하더라도 끝내 깡통으로만 살면서 왈그락달그락 할겁니까? 그중에 누구라도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깡통의 업보를 녹이고 새로 금으로 화하게 된다면 위로는 깡통 부모에게 빛이 되어주고 아래로는 깡통 자식에게 빛이 될게 아닙니까?

내 경험을 한가지 얘기해 드리지요.

어떤 할머니 한분이 찾아와서 울며 하소연하는데 손주녀석이 좀 못되게 군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타가서는 엉뚱한데다 써버리질 않나, 학교수업을 빼먹지 않나, 어른들의 호주머니를 몰래 뒤지지 않나, 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야단도 쳐보고 매도 들어보고 할머니가 눈물로 호소를 해보아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공부에 대해 몇마디 일러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일러 보냈는데 사연이야 어찌 되었거나 그후에도 몇차례나 찾아와서는 내 앞에서 질금질금 눈물을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 할머니, 그 손주가 다 바로 내 할머니 내 손주 같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지요. 얼마후에 그 할머니가 오셔서 연방 감사하다고 해요, 손주가 싹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몸뚱이는 마음이 끌고 다니는 것이니 몸뚱이를 닥달한다고 되겠습니까? 달구지가 안 움직이면 소를 쳐야하지 달구지를 아무리 친다한들 소가 움직이겠습니까?

마음이 통해야 마음이 녹아지고 업보가 녹아 서로 깡통골을 보지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도, 천도 하지만 산사람 천도, 죽은사람 천도가 다 돌이 아닙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公 告

해인사 총림 비상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산문출송시켰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산문출송 : 불기 2540년 9월 18일 12:00**
■ **대 상 : 성법, 무착**

본 해인총림(비)에서는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운동과 관련 "방해활동"**을 저지르는 책임과 **강원폐강** 등의 어처구니없는 파행적인 종무행정 책임을 물어, **성법(주지), 무착(기획실장)을 산문출송**하였으므로 주지 및 기획실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해인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승려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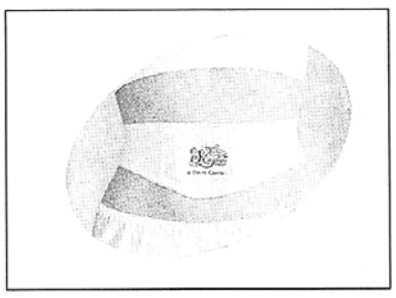
이후 해인사 선원과 강원의 안정된 수행풍토 정착과 **해인총림수호**를 위한 사부대중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불기 2540년 9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총림 비상대책위원회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

부다파아 사이트여행



오토바이를 탄 부처님

5개월간 인도순례 생생히 전달

오토바이로 부처님의 행적을 더듬는 순례단의 소식과 포토에세이를 제공해 주는 신행 웹사이트가 최근 신설됐다.

'헬스부다' 즉 '오토바이를 탄 부처님'으로 불리는 이 사이트는 지난 7월부터 5개월동안 아소카난다(순례단장, 독일인)가 이끈 성지순례단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순례목적 △포토에세이 △성지사진 △ 순례단 소개 등과 같은 순례관련 소식을 일주일 단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더욱 생생한 인도성지순례단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일정동안 불자 네티즌이 순례단 소식에 주목하고 성원할 때, 인터넷을 사용해 사이버 성지순례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 순례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아소카난다씨는 티벳불교의 명상에 심취한 록밴드의 리드싱어로 독일에서는 꽤 알려진 가수. 그는 인류의 사랑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며 이번 순례를 기획했고, 여기에 20여개 단체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규모의 순례단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5개월간의 순례여정은 육인정진과같은 근엄하고 혹독한 수행으로 짜여졌다.

한편 성지순례관련 소식 이외에도 이 웹사이트에서는 순례단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사진도 제공하고 있다. 이 오토바이는 영화 '위대한 탈출'에서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사용한 오토바이와 동일한 모델로 네티즌의 즐거운 눈요기거리.

'헬스부다'의 주소는 http://www.hellsbuddhas.com/ 이다. 〈욱〉

불교용어등 6천단어 체계정리

'북한 고고학·미술사 용어집' 출간



더부분의 불교용어를 포함해 북한의 고고학·미술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 〈북한 고고학 미술사 용어집〉(한창균 엮음·백산자료원刊)이 발간됐다.

지난 92년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가 펴낸 〈조선말대사전〉 속에 들어있는 고고학 미술사 관계 용어를 정리한 이 책은 현재 북한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 등 약 6천여개의 용어를 싣고 있다.

이중 가장 큰 특징은 한자식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것. 목각→나무새김, 원주(圓柱)→두리기둥, 나전칠기→자개박이칠그릇, 문양→무늬 등이 그 예다. 또 라한상(나한상), 련꽃(연꽃), 례불(예불) 등 모든 용어에 머리소리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카르스트(Karst·침식작용으로 생긴 특수한 지형)를 '회바위녹이'로, 애니미즘(animism·모든 사물에 혼이 있다는 고대 신앙)을 '물활론' 또는 '생기설'로 표현하는 등 외래어를 우리말화 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청토단청(범단청), 거푸집(겁), 탁본(탑본) 등 2개의 비슷한 표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은비녀를 은동곳으로, 곽(槨)을 덧널로 표현하는 등 생소한 것도 많다.

한자·외래어 우리말化 남-북 차이 밝혀

이외에도 폐사(廢寺)→페사, 취두(鷲頭·조선식 건물에서 용마루 두 끝에 놓는 장식조각물)→추두로 쓰는 등 우리말로 읽을 때 남·북한이 서로 다른 경우의 낱말도 있다.

한편 이 책자는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 고고학과 미술사를 포함한 용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불교관계자 및 이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있는 그대로 보라

'如實知見' 정보사회 병리 치유책

허우성교수 '정보사회 사이비성' 비판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정보사회의 성격을 불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보사회를 파생시킨 자본주의 문명 자체를 극복하고 신문명과 새로운 성격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불교의 가르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화제의 글은 최근 발간된 계간 〈철학과 현실〉 가을호에 실린 특집 '정보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허우성교수(경희대 철학과)가 기고한 '정보사회의 사이비성: 불교적 비판'.


◇ 허우성교수

현대문명 욕망 부추겨 감각적 쾌락 지향

"계율·선정·지혜는 허상 깨뜨리는 열쇠"

허교수는 서두에서 정보사회로 지칭되는 현대문명은 이미 우리 모두를 오염시켰을뿐만 아니라 문명의 진실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사이비 세계'라고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세계 독립과 평안을 가르쳐 주는 석존의 초기불교로 돌아가 내면성 회복과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교수가 규정한 정보사회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정보, 즉 유(有)라는 애욕의 대상을 생산하고, 그것을 전지구적인 통신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소비하도록 유혹하는 가상세계. 이는 특히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를 통해 오관의 영역을 만들고 신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에 부응하는 진실이 아닌 세계라는 것이다.

허교수는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광고의 작용을 불교의 지각론을 통해 살피고 있다. 광고는 가상의 힘을 빌어 인간에게 무나 공의 무한지평을 가르쳐 주려는 선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는 것. 선정은 사물의 실재성을 무화(無化)시켜 마음의 청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광고는 실재로 둔갑한 이미지를 이 공간에 침투시키고자 하므로, 광고에 노출된 자는 제대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에 집착을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잡상(雜想)을 침투시키는 정보사회가 주는 행복 또한 불교가 가르치는 행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불교가 공과 무를 통한 비물질적인 자유와 행복을 말한다면 정보사회는 감관의 쾌락과 자연을 착취하는 감각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허교수는 출가와 계율의 준수, 선정(禪定), 지혜(智)를 꼽았다. 색성향미촉으로 이뤄진 세계를 경계하고, 외부 대상과 내부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 것이라는 집착을 탈락시키는 지혜(智)를 통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공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교수는 불교는 '있는 그대로 보라'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이념은 개인으로서는 진정한 자유, 행복, 그리고 능동적 자비이며, 사회로는 병든 사회의 회복이요, 인류전체로는 중생구제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명우 기자

"영탑공원 생활공간화 바람직"

동국대 지난 18일 '장묘문화 바꿔야…' 세미나

시설 규제완화 절실…동국대 1천억규모 추진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납골시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일반인들의 혐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영탑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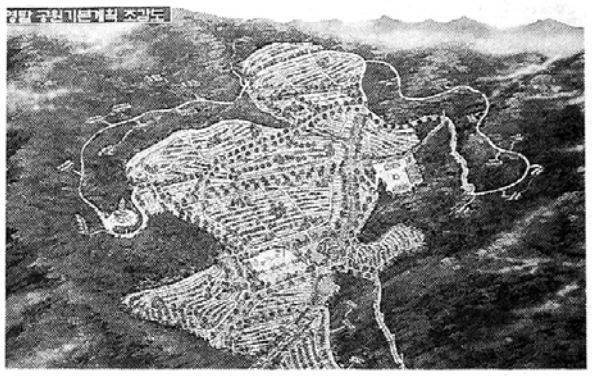
이같은 결과는 동국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영탑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연구를 의뢰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개최한 '장묘문화, 바꿔야 한다'는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묘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970㎢로 남한 전체면적의 1%, 총택지면적 1937㎢의 절반을 넘는다"며 "이는 분묘 1기당 평균면적 약 13평(42.5㎡)으로 1인당 주택면적인 4.3평보다 3배가 더 크다"고 묘지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광스님(동대 선학과교수)은 '우리나라 장묘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제에서 "정부는 관혼상제 관련 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종교시설내에 설치하는 경우 일정기준이 충족되는 집단납골시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종교단체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상의 묘지시설과 납골시설을 분리하고 입지규제를 완화시키는 사업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종식소장(삼성지구환경연구소)은 "일반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영탑시설이 바람직하다" 지적하고 "영탑공원은 기존의 납골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납골문화 확산에 큰 기여가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납골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장은 영탑공원의 경우 탑의 참신성과 종교적 이미지가 강조되며 습기 악취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유골의 집단수장이 가능한 영탑공원은 성공성이 매우높다는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동국대가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1천억 예산규모로 추진중인 영탑묘원 조감도.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동국대는 이날 세미나를 토대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있는 학교 실습림에 1천억원 예산규모의 영탑공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김원우 기자

단 신

에밀레종 4년만에 타종 연말 종합진단보고서

'훼손우려'를 이유로 지난 4년동안 타종이 중단됐던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국보 제29호)의 종소리가 지난 13일 천년고도 경주에 울려 퍼졌다.

이번 타종은 국립경주박물관과 산업기술연구소, 한국범종연구회, 한국음향학회 공동으로 실시중인 성덕대왕신종 종합안전진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조사단은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 37차례의 타종을 실시함으로써 음파·진동 포착에 성공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자료조사, 안전상태진단, 정밀실측 등을 완료해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사

"법계가 모두 마음임을 관하라"

대웅전

諸法從本來常自寂滅相
(제법종본래상자적멸상)
佛者行道己來世得作佛
(불자행도이래세득작불)
세존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청정한 광명이 천개의 해가 뜬듯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바다 밑까지 태우고
바람이 산을 서로 부딪치도록 불어 닥쳐도
항상 고요하고 즐거워라
이와같이 열반에 든 상이여
만일 누구라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려거든
모든 법계의 성품이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관하여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적멸한 상이니
불자가 이 도리를 깨닫고 행하면 내세에 성불하리라.

해설 조계사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종의 제1교구 본사다. 1911년 한용운 이희광 두 스님이 중심이 되어 창건했으며 처음에는 태고사라 불렀다. 1954년 불교정화운동을 계기로 조계사라고 개칭됐다. 조계사 대웅전의 주련은 부처님의 위대함, 열반의 기쁨, 법계가 마음으로 이뤄짐, 성불의 길 등 4수의 게송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제3회 "문화재 보전 수리기능인 작품전"

초대일시 : 1996년 10월 8일~27일(오후3시)
장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내 궁중유물전시관
주최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후원 : 문화재관리국·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불교신문사·불교방송국(라디오·TV)
취지 : 우리 민족은 지난 5천년동안 불행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창조하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전승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에 우리 1천4백여 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문화재 복원수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한편 틈틈이 연구제작한 작품들을 한데모아 세번째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꼭 오셔서 관람하시고 격려와 편달을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 10월 일

우리 협회는
1)문화재 보전수리 및 고전건축과 각종불사(佛事)에 소요되는 고도의 기량과 자질을 갖춘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1988년 8월에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입니다.
2)소중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원형보전수리하고 나아가 투철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전건축 및 각종 불사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730-7774, FAX : 730-7773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광성빌딩 601호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회장 전 흥 수

임 원 명 단

회 장 : 전흥수
부 회 장 : 김익홍, 장효순, 이중구
상임이사 : 이진형(기획), 허길용(섭외), 이재순(홍보), 심용식(재정)
이 사 : 신응수, 정재규, 정천수, 김광열, 정문길, 이주탁, 이칠형, 이광수, 김식경, 김재만, 김성채, 최용규, 전연호, 윤주동, 이부춘
감 사 : 윤정우, 최교준
명예회장 : 장영근
고 문 : 손주항, 김성준, 이혜철

출품회원(기능인)명단

장영근, 조호준, 심용식, 조계수, 전홍수, 이중구, 이정환, 고석산, 김광열, 이재휴, 김복수, 이재순, 김진성, 김만환, 김식경, 전연호, 김재범, 심철호, 조찬웅, 김성희, 정성길, 윤희신, 이광수, 김익홍, 김연호, 정문길, 박문열, 김영길, 최교준, 류수관, 김동환, 안강수, 송안섭, 김수열, 임형철, 김대현, 양봉철, 윤부철, 김태길, 임성안, 한봉석, 송근영, 박병래, 이방호, 김광현, 김영배, 이기경, 유중원, 허길용, 이진형, 박찬수, 김광열, 이재휴, 김복수, 차영근, 오윤용, 임영규, 제영전, 강영재, 김성호, 배금용, 박성규, 이정석, 오세종, 고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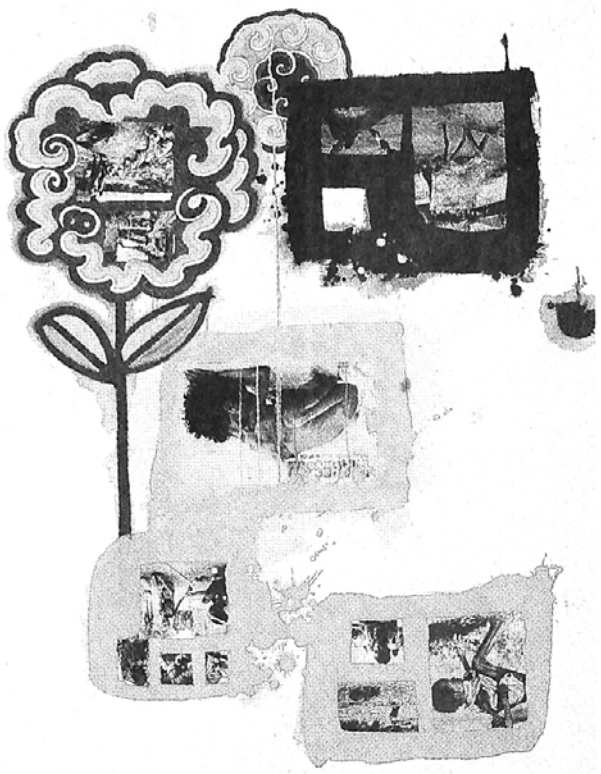
"부처님 가르침 행복의 길 제시"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㉗

불교와 윤리

개인해탈·인류공영 지침…인종초월 세계로 확대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이 승리자"
"증오보다 더한 악은 없다"
"악기 조율하듯 영혼을 가꿔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면서 신분과 인종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손연칠교수(동국대)의 회화 '유니세프 지장보살'.

네팔의 작은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정각(正覺)을 이룬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난 2천5백년 동안 동양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침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동양이란 지역적 범주에서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부처님은 신분과 인종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밝힌 것이다.

아래에 불교 경전에 전해지는 가르침을 인용한다.

증오는 결코 증오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사랑만이 증오를 멈추게 한다. 모든 옛 가르침이 이 점을 강조했다.

어느 전투에서 천명의 적을 굴복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도 있다. 이 중 진정한 승리자는 후자이다.

가슴속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은 없다. 증오보다 더한 악은 없다. 육체에 끌려 다니는 삶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마음의 평화를 능가하는 행복이란 없다.

이 세상에서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세상에서 격정을 끊고 욕망을 극복하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 기주의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최상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행복이란, 무소유(無所有)를 깨닫고 진리를 구하여 지혜에 도달한 사람의 것이다. 가진 자가 겪는 저 고통을 보라. 스스로 사슬에 묶인 자가 거리에 가득하다.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슬픔은 모두 애욕(愛慾)으로 인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땅에 대한 애욕을 버린 자는 자유롭고 행복하다. 만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애욕(집착)을 가지지 마라.

속마음에 진심(瞋心, 노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유형(有形)·무형(無形)의 그 어떠한 사물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에겐 귀신들도 범접할 수 없다. 그의 마음은 공포의 먹구름이 걷히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행복이 충만하다.

언젠가 부처님이 숲속에 기거할 때, 어느 재가신자의 외아들이 죽었다. 그 아이의 일가 친척들이 밤새 장례를 치르고 새벽녘에 옷이 흠뻑 젖은채 지나가다 부처님과 마주쳤다. 부처님이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부처님,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명랑하고 사랑스런 아이였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사랑스런 겉모습이 주는 즐거움에 한눈 팔고, 괴로움과 늙어감에 어쩔줄 몰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신(死神)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밤낮으로 깨어 자신을 경책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외양에 이끌리지 않고, 고통의 뿌리를 송두리채 뽑으며,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죽음의 유혹을 물리친다.

어느 불한당이, 부처님이 악업(惡業)을 선업(善業)으로 갚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욕을 했다. 부처님은 묵묵히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지쳤을 때, 부처님이 입을 열었다. "만일 누군가가 선물을 거절한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가 대답했다. "그야 물론 선물하려고 한 사람 것이 되겠죠." 부처님이 덧붙였다. "네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사양했으니 그 욕은 자네 것이 아닌가. 그 많은 욕을 볼들고 자네, 그래 앞으로 어찌 살아가려나?" 그 불한당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는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어느 부처님의 제자가 엄격한 고행생활에 지쳐 다시 쾌락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다. 부처님이 그를 불렀다.

"너는 옛날에 현악기를 잘 타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자가 대답했다.

"줄이 강하게 매어졌을 때, 악기가 제 소리를 내더냐?"

"아닙니다."

"줄이 약하게 풀어졌을 땐 어떠냐?"

"역시 제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당히 매어졌을 때 제소리가 나겠구나?"

"네."

"그래, 영혼도 마찬가지란다. 너무 힘있게 조이면 편벽해지고, 너무 약하면 나약해진다. 그러니, 악기 조율할 때처럼 네 영혼을 가꾸도록 하여라."

강이 두 왕국의 경계를 이루며 흘렀다. 양국의 농부들은 그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어느해 가뭄이 들어 농사지을 물이 모자라게 되었다. 서로 물을 끌어 들이려다 시비가 일었다. 급기야 양편의 농부들이 편싸움을 벌였다. 싸움에 진 농부들의 편을 들기 위하여 군대가 출동했다. 이에 질세라 상대편의 군대도 달려왔다. 마지막엔 양쪽의 왕까지 정예부대를 이끌고 와서 대치하게 되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그 부근을 지나가던 부처님이 달려와 양 진영의 왕을 불러 모았다. 부처님이 왕들에게 말했다.

"저 강물과 여러분 백성의 피중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예, 그야 물론 저 사람들의 피가 강물보다 귀합니다."

"왕이여, 잘 생각해 보시오. 벌것 아닌 것을 위해 고귀한 것을 희생시켜야 하는 지를! 전쟁이 일어나면 피의 강이 새로 생기겠지만, 저 강물의 수면은 조금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오."

부끄러움으로 뺨이 붉어진 양쪽의 왕들은 평화적으로 합의하여 강물을 나누기로 하였다. 며칠후 비가와서 다시 물이 풍족해졌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들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진리로 이끄는 최선의 윤리인 것이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구 민 〈성우〉



"오늘도 경허스님 떠올리며 방송"

'고승열전' 해설하며 삶의 자세 조금씩 변화

경허스님!

오늘도 스님의 고귀한 법호를 떠올리며 불교방송국을 다녀 왔습니다. 방송국을 가는 길과 오는 길에서 저는 스님의 이름만 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삶을 생각합니다. 스님의 삶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보다 많이 생각 하는 것은 저의 살아 온 길과 살아 갈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90년 5월 1일, 그날은 우리나라 불교계에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나라생긴 이후, 아니 부처님 가르침이 울려퍼진 이후 처음으로 불교방송이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그 뜻 깊은 날의 영광을 저도 함께 할 수 있었음이 두고두고 자랑스럽습니다. '고승열전'이란 프로그램의 해설을 맡으면서 저는 무척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고승들의 삶을 오늘의 언어로 전한다는 일이 어찌 조심스럽지 않았겠으며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적 어머님을 따라 태고사를 다니던 아련한 추억이 불교에 대한 체험의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조계사로 이름이 바뀐 그 시내 한가운데 절에서의 밥맛이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 무수히 절을 하고 기원의 염주를 굴리시던 어머님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 왔던 것입니다.



경허스님, 스님을 처음 만난 그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42분의 생애를 드라마로 구성해 진행하면서도 저는 스님을 잊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른 아침의 까치 소리같이 신선하게 던져 주신 스님을 쉽게 잊어 버린다면 저의 전생 업이 너무도 두텁다는 것이겠지요. 다행히 제게는 현생에서 큰 스님들의 체취를 맡을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란 수식어를 밀쳐 놓더라도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을 가르침에 서릿발 같았고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중생과 한 몸이 되어 보살행을 보이신 스님의 행적을 방송언어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성우 생활의 자만심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며 그 속의 진리를 배우며 보다 완성된 성우로서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더욱 북돋워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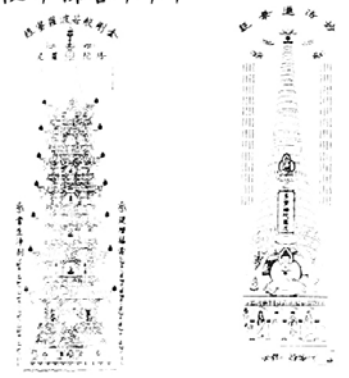
스님은 제게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 주셨고 우리 시대의 중생들에게 삶의 바른 길을 일러 주셨지만 그 소중한 가르침이 자꾸자꾸 망각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고승열전'을 진행한 이후 살아가는 자세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름철 모기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이거 죄 짓는 것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큰 스님들의 삶을 엿보는 가운데 생겨난 기특한(?) 불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통해 큰 스님들의 살아가신 모습과 훌륭한 가르침을 새기면서 매우 당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면 꾸지람을 들을 망념일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스님, 저는 다시 오실 경허스님을 기다립니다. 단순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염원은 아닙니다. 무수한 고승대덕들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고행이 그분들을 한 시대의 정신을 이끄는 찬란한 법석이 되게 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시 그러한 찬란한 법석이 그립습니다. 아니 더욱 그리운 것은 그 법석의 찬란한 광명을 받아 들일 줄 아는 중생들입니다. 산마다 절마다 큰 스님들이 주석하셔서 우렁찬 사자후를 내려 보내시지만 그 감로법을 마시고 목 축이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립습니다. 큰 스님이 없는 시대보다 더 슬픈 것은 부처님과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스님, 다시 오시되 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말고 수만 수천의 중생 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추상같은 수행과 바다같은 보살행의 주인으로 오셔서 불국토를 일궈 주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부산.경상남북도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 이 氣(기)는 신심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악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언제 이루어 질것인지?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될것인지? ● 투자일을 하면 될것인지 ? ●대학 입시에 합격할것인지?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 등 어떠한 일이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氣(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氣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氣가 나오면 십중팔구 (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온갖 靈(영)들이 떠돌아 디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 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즐겨나갑니다.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⑭

縱有多智禪定現前 亦落阿蘭外道
종유다지선정현전 역락사마외도
可知道持戒的重要
가지도지계적중요
持戒的人 龍天擁護魔外敬畏
지계적인 용천옹호마외경외
破戒的人 鬼言大賊 掃其足迹
파계적인 귀언대적 소기족적
從前 在判資國 近着僧伽藍的地
종전 재계빈국 근착승가람적지

비록 많은 지혜와 선정이 나타나더라도 역시 사마외도에 떨어질 것이니 계를 지킴이 중요함을 알아야한다.
계를 지키는 이는 용과 하늘이 옹호하고 사마외도가 공경하고 두려워 한다.
계를 깨는 사람은 귀신들도 도적이라 말하며 그 족적을 쓸어 버린다.
전에 계빈국에 가람 터가 있었는데

有條毒龍 時常出來 爲害地方
유조독룡 시상출래 위해지방
有五百位阿羅漢 聚在一起
유오백위아라한 취재일기
用禪定力 去驅逐他 總沒法把他趕跑
용선정력 거구축타 총몰법과타간궤

독룡이 문득 멀리 가버렸다.
여러 나한들이 이 스님께 묻기를 무슨 신통으로 독룡을 쫓았습니까 하였다.
이 스님 이르기를, 나는 선정의 힘으로써가 아니라 오로지 계율을 삼가 지켜서
가벼운 계율이라도 마치 중계인양 수호합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컨데 오백아라한의 선정력이 금계를 엄격히 지킨 한 스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或云 六祖說 心平何勞持戒 行直何用參禪
혹운 육조설 심평하로지계 행직하용참선
我請問異猜心已平直沒有
아청문이적심이평직몰유
有箇月裏嫦娥赤身露體抱着爾
유개월리 상아적신로체포착이
爾能不動心嗎
이능부동심마
有人無理辱罵痛打爾 爾能不生瞋恨心嗎
유인무리욕독통타이 이능불생진한심마

혹은 이르기를, 육조스님께서 마음이

"마음을 평안하게 행동을 곧게하고 가벼운 계율도 중계처럼 엄격히 수호"

後來令有一位僧人 也不入禪定
후래령유일위승인 야불입선정
僅對那毒龍說了一句話
근대나독룡설료일구화

독룡이 때때로 나타나 그 지방을 해치므로
오백명 아라한이 한번에 모여들어
선정의 힘으로 독룡을 내쫓으려 했으나 도무지 내쫓지를 못했다.
후에 한 스님이 와서 선정에 들지 않고서 독룡을 상대로 한 구절 설하기를

賢善遠此處去 那毒龍便遠跑了
현선원차처거 나독룡변원궤료
衆羅漢問那僧人 甚麼神通把毒龍趕跑
중나한문나승인 심마신통파독룡간궤
他說 我不以禪定力 直以謹愼於戒
타설 아불이선정력 직이근신어계
守護輕戒 猶如重禁
수호경계 유여중금
我們想想 五百位羅漢的禪定力
아문상상 오백위나한적선정력
也不及一位嚴守禁戒的僧人
야불급일위엄수금계적승인

어진이여 예서 멀리 떠나가라 하매 평안하면 어찌 계를 지킴에 노고가 있으며 행동이 곧으면 어찌 참선에 힘쓰랴 하였다고 했다.
내가 묻노니 그대의 마음은 평안하고 바른가.
만일 달밤에 아리따운 여인이 벗은 몸으로 그대를 껴안는다해도
그대는 능히 부동심일 건가.
어떤 사람이 그대를 이치에 맞지않게 욕하고 매도한다면 그대는 능히 노여워하지 않을 텐가.

爾能不多不分別怨親憎愛 人我是非嗎
이능구불분별 원친증애 인아시비마
統統作得到 才好開大口 否則不要說
통통자득도 재호개대구 부측불요설
空話
공화

그대는 능히 원수와 친구, 미움과 사랑, 나와 남,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에 이르렀다면 입을 여는 것도 좋지만 아니라면 헛소리하지 말지어다.

龍眼

★ 지상법석

"웃는 얼굴 좋은 말

덕명스님 〈안적사 주지〉



약력
- 1926년 울산 生
- 49년 범어사서 동산스님 은사로 득도
- 해인사 범어사 강원서 이력마침
-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및 중앙종회의원, 범어사 주지(78년) 역임
- 78년 부산불교연합회 창립

서호청풍강남러 (西湖淸風江南來)
학비장천철우가 (鶴飛長天鐵牛駕)
한래한거무타사 (閑來閑去無他事)
월조건곤허공무 (月照乾坤虛空舞)

서호의 맑은 바람 강남에서 불어오니
먼 하늘 학이 날고 쇠소와 기러기
한가로이 오고가니 다른 일이 없어
하늘 땅 가득 비춘 달빛 허공에서 춤을 추네.

참으로 오래전에 내가 혈기충만하던 그 시절에 지은 것입니다. 그때 나는 파계사 금당선원의 말석에서 안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전(聖殿)에 성철 스님이 계시던 때였고 정진하는 수좌들의 눈빛이 모두 형형하던 시절이었지요. 수좌가 많았던 것은 아니고 다섯명 정도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밤이면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 선선히 불어 오는 미풍에 몸을 맡기고 선정에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더기 무더기 별빛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기운을 호흡하고 들끓는 번뇌를 벗어 던지기 위해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음력 6월 보름이었는데 무척 더웠습니다. 나는 저녁 공양후 정진을 하다가

"물고기 사서 놓아주는 일
오히려 환경만 해칠뿐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축생미물 볼 때마다
'좋은세상 환생하라'
축원이 바른 방생이죠"

조용히 밖으로 나가 솔 숲에 앉았습니다. 솔바람이 고요히 불어 오는 그 적막한 시간에 나는 은사스님이 내려 주신 '무(無)'자 화두를 들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유와 무의 양변을 왕래 하면서도 한곳에 치우치지 않으며 무착무애(無着無碍)의 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적(寂寂)의 시간에 불현듯 떠 오르는 보름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가득 들어차는 기쁨이 있어 혼자 일어서 춤을 추었지요.
안거 기간중 그때의 열락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음미하고 보임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재주로 그 열락을 표현해 은사이신 동산스님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문득 스승께서 얼마나 가소로와 하실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군요.
해제를 해서 먼저 범어사로 달려 갔습니다. 은사님을 뵙기 위해서죠. 스님은 내가 삼배를 올리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건방을 부렸다고 호통을 치실 것같아 마음을 조리고 있었고요.

"그놈 제법 도둑질을 하겠어."

호통이 아닌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씀이 칭찬인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스님께 절을 하며 "이왕이면 큰 도둑으로 키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님에게 열심히 공부하란 말씀을 듣고 물러 나왔는데 아직 그때의 말씀과 그 조용한 모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서두에 내 얘기가 길었군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열심히 정진하란 뜻에서 옛날 얘기 삼아 한 것입니다.
오늘 법회에서 나는 방생의 참의미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오고 중추가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쯤이면 많은 절에서 방생법회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방생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바로알고 바른 방생을 해야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도 모른채 잘못된 방생을 하면 악업만 더 쌓는 것입니다.
방생은 글자 그대로 생명을 놓아 주는 것입니다. 뭇 중생을 죽음의 공포에서 병마의 고통에서 천재지변의 고난에서 건져 주는 것이 방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사는데 이 방생 하나만 잘 행해도 무량한 성불의 근기를 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생은 이론도 필요없고 계획도 필요없고 연습도 필요없습니다. 오직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똑 같이 행해야 할 일인 것이지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도 방생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하는 방생은 더욱 안될 일입니다.
물고기를 사서 물에 놓아주는 방생은 이제 그만 둬야 합니다.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방생이 될 뿐이니 무슨 공덕이 되겠습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물고기 몇마리 놓아 주고 소원을 빌지만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공덕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나마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실로 자기와 중생을 자유롭게 하는 방생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생과 미물을 볼때마다 "어서 그 축생미물의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우학스님 수필집-
거거는맨날 고기묵고...
이 시 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 … 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고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게·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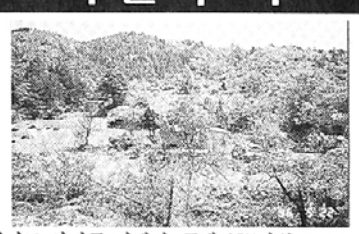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천혜의 전원주택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 7,000만원
◉ 지목: 대지(2필지), 평수 : 234평
◉ 건평 : 26평(현재 화방) 기름보일러
◉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정남향)
◉ 마당에 정자나무 2그루 잔디정원
◉ 채전도약 100평도 붙어 있음
◉ 주의경관 수려하고 옆에 계곡물이 있음

사찰부지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6,500만원
◉ 지목: 준농림(H) 평수 : 1002평
◉ 진입로 및 토목공사(평탄작업해 드림)
◉ 경관이 수려하여 참선 도량및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 투자성도 매우 좋음,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 (카루나 영화 촬영장 150m 근접)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테잎으로 대중포교
나레이션 형식 배경음악 감미

생활속에서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토굴에서 정진하던 정우스님이 기존에 있던 형식을 벗어버리고 진리의빛 Ⅰ은 (초심, 발심)을 진리의 빛 Ⅱ는 (장경문)을 수창음반에서 만들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주)문화뮤직콤에서 만들어 9월13일부터 시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느니라.
-금강경중 에서-

제작 : (주) 문화 뮤지콤
(02) 561-3275

지상법석 ★

생활속 방생입니다"

남위해 베푸는 모든 일이 방생이고
나위해 수행정진하는 것도 방생

탈을 벗고 좋은 세상으로 환생하라"고 축원 한마디 해 주는 것이 더 바른 방생일 것입니다. 방생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무조건의 방생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수행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방생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자신의 업장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윤회의 굴레에서 수많은 업을 지으며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고의 사슬은 길기만 한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이 중생의 사슬을 벗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슬을 벗는 일은 하루이틀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수행과 선업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둘로 갈라 놓아서는 안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웃(중생)의 고통을 돌보는 큰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그 큰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큰 마음을 내기 쉬운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 복잡한 생활 속에서 스스로 사슬을 풀어내는 지혜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그 어려운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을 갖길 서원 하면 됩니다. 서원하는 그 순간 이미 보살의 마음은 갖춰집니다. 얼마나 착실히 유지하고 쓰느냐하는 것이 문제이겠지만 말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모두 어여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래도록 갖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세상을 어여삐 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여쁜 세상이 보이고 흉하게 보는 사람의 눈에는 흉한 세상만 나타납니다. 여기에 중생과 보살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이 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달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생을 하는데 있어서도 나 자신을 방생하는 것과 다른 생명을 놓아 주는 일을 따로 두고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번뇌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떤 생명을 편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달마대사가 혜가에게 "그 마음을 가져 오너라"라고 함으로써 제자의 눈을 번쩍 뜨게 했던 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편안하게 구족된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은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가 이미 방생의 실천입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상을 보고 거북하거나 짜증스럽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상 그 자체가 우리를 방생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단한 자기수행과 서원 그리고 조건 없는 실천을 통해 사회의 방생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늘이 너무 많습니다. 그 그늘 속에서는 반드시 가난과 질병과 범죄가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을 낸 불자들의 손길은 그런 독초를 제거하는데로 모아져야 합니다.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의 손과 눈을 이 사회의 그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스스로 죄업의 사슬을 푸는 수행이 필요하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 필요 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것이 나중이란 분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살심을 내는 것과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넓히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은 해질녘의 산그림자처럼 넓어지고 범죄 소식은 끝이 없습니다.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인줄 알지만 이미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사회가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이유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사는 곳이 지옥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옥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마음을 닦는데서 시작됩니다. 티끌이 가득한 마음은 지옥을 지을 뿐이니 스스로 짓는 윤회의 사슬을 어느 세월에 벗어던진단 말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 수행정진 하는 것은 마음의 티끌을 닦아내고 청정한 법계를 짓는 일임을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고통의 근본을 모른채 무심히 살다 가는 것은 축생미물의 윤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 자신의 실상과 생노병사의 고통이 왜 오는 것인지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수행정진 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생을 받아 불법에 귀의 한 것도 무수한 전생의 선덕이 있어서 가능 한 것입니다. 다음생에서는 한 걸음 더 해탈로 나아간 모습으로 태어 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살심 서원 '자기 방생' 먼저하면 사회방생 저절로
"내가 번뇌 묶여 있으면 어떤 생명도 구제 못해요"

편하게 해 주는 것은 그분은 이미 생노병사의 굴레를 다 뛰어 넘으신 대각의 상을 스스로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며 좋은 낯빛을 하는 것도 이미 중요한 방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 웃음 띤 표정 하나가 다 방생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순간이 다 방생의 과정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이웃이 있고 일체 만물이 있습니다. 나의 한 동작이 죄악이면 법계가 죄에 휩싸이고 나의 말 한마디가 선하면 법계가 착해집니다. 나는 법계의 모습이고 법계는 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방생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듯 방생은 실천인 것입니다.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웃음띤 얼굴을 갖는 방생에서 고통속의 이웃을 돌보는 방생에 이르기까지의 작고 큰 방생을 생활화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대로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실천력이 없는 방생이란 있을 수 없으며 조건을 따지는 방생만 하는 사회는 오히려 지옥도에 죄악을 덧칠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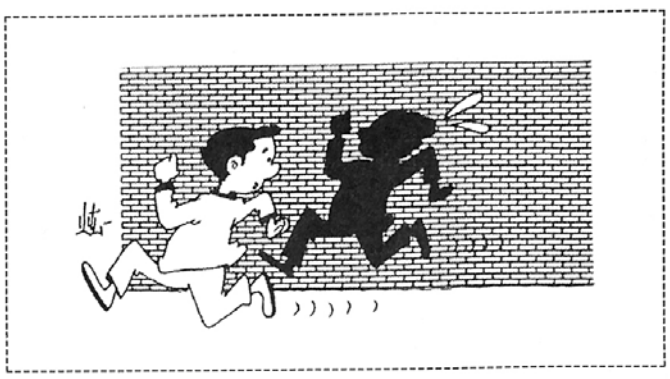
자신을 먼저 방생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셨을 겁니다. 이제 불자들은 사회보살심을 낸 불자 오백명이 모이면 그대로 천수천안이 아닙니까. 관세음보살님은 하늘에 있지 않고 지장보살님은 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내면 그대로 관음보살이요 지장보살인데 그래서 그 원행을 행하면 이곳이 불국토인데 어디 가서 찾고 있습니까.

"나의말 한마디가 선하면
법계가 착해 집니다
나는 법계의 모습이고
법계는 나의 거울입니다"

방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입니다. 해탈은 자유이고 무애자재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사회를 방생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슬을 푸는 것도 사회를 향해 방생의 실천을 쉬지 않는 것도 다 해탈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해탈을 향해 정진하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 해탈의 길을 열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해탈한다는 것은 온 법계가 해탈한다는 것이니 그 자리야 말로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국토는 커녕 지옥문을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며 얼마나 많이 닦느냐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닦으며 이웃의 사슬을 풀어 주는 보살행을 한시도 쉬지 마십시오.

방생은 보살행입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해탈하는 실천의 길입니다. 방생법회에 참가 하는 것만 방생이 아닙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모든 일이 방생이고 나를 위해 수행하는 일도 방생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방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와 일체 중생의 위대한 해탈을 향한 방생의 원력을 굳게 세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 갑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6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3)

실(實)과 허(虛)

'물질-에너지' 같은 성질이나 표현 달라
분별지로 판단한 것은 '我'의 고집일뿐

지금까지 현대물리학의 근본이 되는 양자역학적 물질관에 덧붙여 우주·물질에 대한 물리학의 또다른 관점인 상대성이론의 일부분을 설명하였다. 경전이 설하는 무색 무수상 행식에 대해 상대성이론은 색과 아(我)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물리학은 수상행식의 주체인 아(我)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아가 보는 색이 아를 떠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색을 보는 아도 결국은 하나의 집착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바침하고 있다. 색(色)이란 결국 아(我)가 만들어 낸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체가 운동하고 변하여 생기는 여러가지 현상은 실체가 아닌 신기루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실체와 현상은 실(實)과 허(虛)일까? 상대성이론은 허와 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2$이 바로 허즉실이요 실즉허를 뜻한다.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자.

$E=mc^2$은 질량이 있는 입자가 사라지는 대신 에너지가 생겨나고 에너지가 변하여 질량을 가진 입자로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아니 그것보다 모두 질량을 가진 입자가 에너지의 특수한 형태임을 뜻한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라고 할 때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없다. 물체가 운동하면 거기엔 운동에너지가 있다고 말할 뿐이다. 질량을 가진 물체를 실체라고 할 때 이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보다 많은 운동에너지를 갖는다하고 느리게 움직이면 보다 적은 운동에너지를 갖는다할 뿐 빨리 움직이든 느리게 움직이든 실체에 무슨 변동이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저 운동상태가 바뀌었다고 말할 뿐이다. 즉 실체가 나타내 보이는 현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동에너지란 단순히 현상이 바뀌는 정도에 대한 척도일 뿐이다. 또한 지상에서 물체의 높이를 바꾸어 주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실체가 갖는 위치에너지가 적으며 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보다 많은 위치에너지를 갖는다고 말한다. 이 경우에도 위치에너지는 실체인 물체의 위치가 변한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일 뿐 실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일상경험의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대로 물질을 실체라고 하는한 에너지는 허상일 뿐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성질을 연구한 결과 에너지가 물질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바로 $E=mc^2$은 상대성이론에서 유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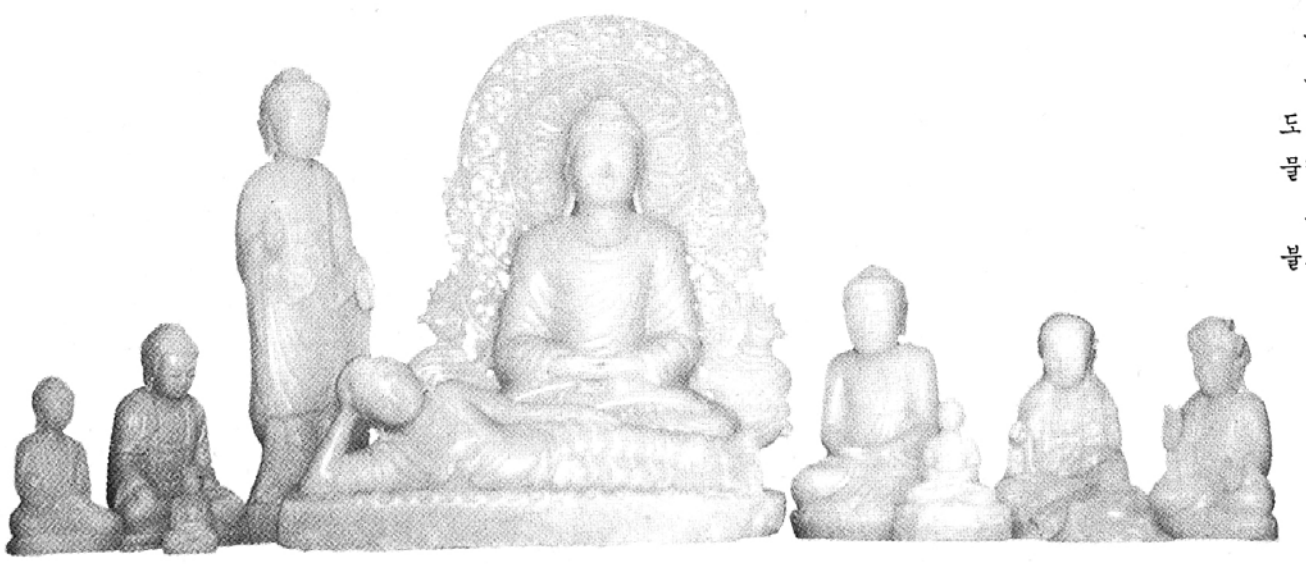
현상에 따른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와 실체라고 생각해 오던 물질이 사실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상대성이론이 말해주고 있으며, 이 사실은 실험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검증된다. 우리가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허와 실로 나눈 것이 '아(我)'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다는 법이 없고 다 옳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 뜻하는 내용이다.

사람이 오관으로 보고 느끼며 분별지로 판단한 것은 결국 '아'의 고집에 불과한 것이다. 한꺼풀 벗기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또 한꺼풀 벗기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난다. 반야심경은 사리불에게 이것을 가르키는 것이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네 고집에 불과할 뿐 그것이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은 네가 오관으로 보는 모든 것은 네가 그렇다고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진리는 주와 객을 초월하여 반야지로 비출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심경이 설하는 것이다.

물리학은 반야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으나 분별지로 판단해 본 결과는, 적어도 분별지 내에서는 심경이 말하는 내용이 옳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진옥(眞玉) 부처님을 조성합니다.



우리는 세계에 자랑스런 수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성한 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대에 맞는 문화재를 창출하여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자부심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옥불을 조성하여 20세기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재가 되도록 하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 상 필 合掌

옥불의 가격은 일반동의 가격과 별차이 없으며 저렴하게 모실수 있습니다.

옥불조성전문업체
㈜金剛玉佛株式會社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동 190-24번지
☎ (051)802-4696~7 FAX (051)802-4698

고은 불교대하소설



지진이 지나간 며칠 뒤로 벌써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잊어버린채 갓난아기의 옹알이에 한없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도 닮은 그런 망각이었을까.

사람의 기쁨 대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상이야말로 더많은 두려움이나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인지 모른다.

대해가 차츰 섬의 도량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인담이 어린 행자 우식과 만우에게 글을 가르친다면 대해는 그 아이들을 섬의 숲이나 파도가 몰려와 물기둥을 만들어 솟아오르다가 부서지는 절벽 끝에 데리고 다니며 세상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니 그는 심자어 옛 조사(祖師)의 글 따위도 비웃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천년전의 헛소리를 찍하러 배운단 말이야. 이렇게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파도소리이면 그것이 참된 소리일 터이지."

그러자 우식행자가 그 말을 받았다.

"파도소리도 천년 전부터 들리던 그 소리 아닙니까?"

"이놈아 그때 네 귀가 듣고 있었더냐?"

"천년전에요?" 라고 우식이 곰곰히 생각하는 척 하다가 "그래요. 그때 저는 박새 한마리였어요. 새한테도 귀가 있으니까요."

"오놈이 나를 머리로 들이받은 걸 보니… 너는 새보다 뿔달린 황소였겠구나."

"음메" 하고 우식이 황소 울음소리를 흉내냈고 만우가 그런 우식의 등짝에 넝큼 올라탄 뒤 "이랴! 이랴! 이놈의 맘아 지야" 하고 얼러댔다.

대해는 그런 두 행자의 장난에 깜짝 놀랐다. 이 어린 녀석들이 그저 어린 녀석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인담선사가 얘기한 적이 있던 당나라 초기 천태산 산중으로 숨어버린 한산(獨山) 습득(拾得)의 후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천태산 국청사(國淸寺)는 진작 수나라 천태종의 지의(智顗)에 의한 법화경의 영향을 받은 이래 남종선(南宗禪)의 은자(隱者)들이 드나들기도 하는 절이었다.

그 절 풍간(豊干)선사가 한산 습득을 가르쳤으나 그 가르침이란 것도 검불로 여겨 새들이 검불 둥지를 떠나 날라가버린 터였다. 혹은 구름 속에 숨고 혹은 숲속의 메아리가 되었다.

다만 그들인지 누구인지가 나무 줄기에 시를 쓰거나 산채 흙담에 시를 써 남긴 것이 뒷날 한산시로 남겨진 것이다.

그 한산 습득은 어지간히 늙은 장난꾼들이었으나 천년 세월의 이쪽 무욕도에 살고 있는 우식 만우는 어린

무욕도 섬 전체가 사람기운으로 충만했다 "손님들이 아니라 식구가 늘었어"

배 한척 건너오다

에 들이닥쳐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달빛은 밝고 밤배는 그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었다. 우녀나 소식행자 같은 여자를 잡아다가 송나라 장강 남쪽의 포구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가정도 없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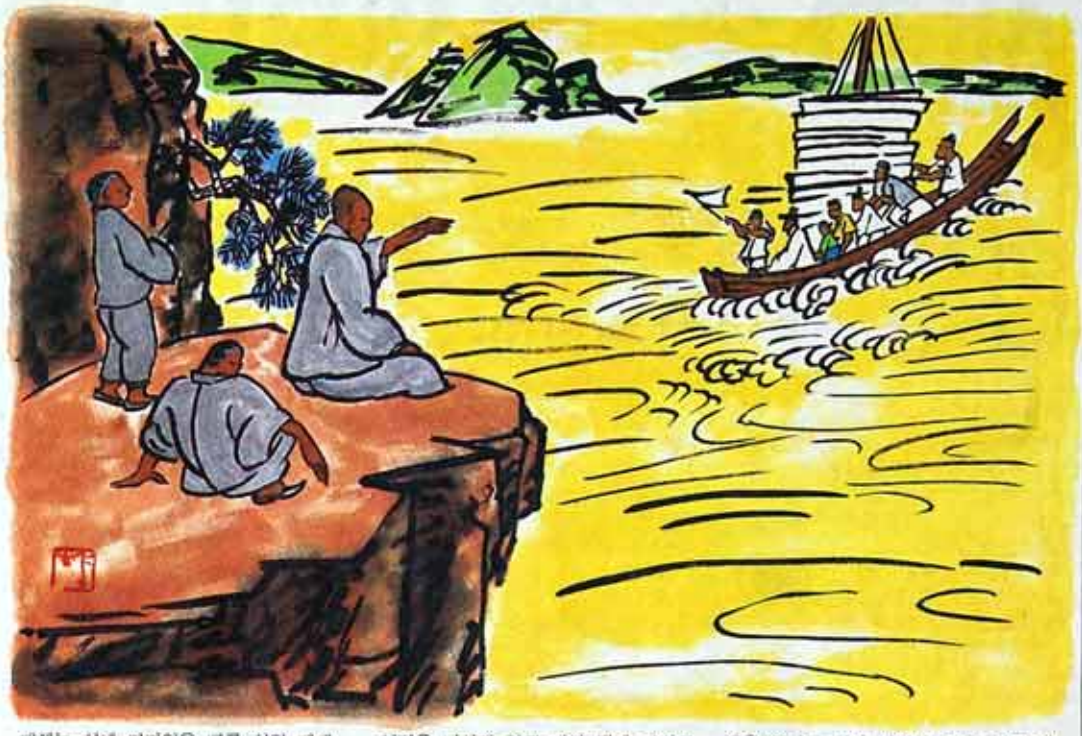
어쨌거나 벌다른 술책이 아니면 해적선에는 반드시 그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검정이나 빨간의 깃발을 날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 깃발 바탕 위에 반드시 해골이나 칼을 그려넣기 마련인데 어떤 것은 조각달이나 용을 그려놓은 것도 있었다.

"오어!" 하고 배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났다.

그들은 무욕도에 사람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배는 남쪽 바닷가에 자어진 세채의 도량들을 볼 수 없는 북쪽이었으므로 섬의 형편을 모르고 있었다.

"여어!"

"여어."



대해는 섬에 가까워온 배를 섬의 때배 선착장 쪽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하였다. 배 위에는 사람이 일곱사람이나 갑판 위에 나와 있었다. 뱃사람 차림이 아닌 사람이 셋이었다.

배는 암벽이 북쪽을 막고 물을 친 것 같은 선착장으로 들어왔다. 그 배로 하여금 무욕도가 더욱 당당한 곳으로 보이기까지 하였다.

"저희들은 인담대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는 선장으로 보이는 짙은 수염의 중년남자의 말이 우렁찼다.

"예성강 회회포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인담은 나서지 않고 대해 뒤에 가만히 있었다.

"저희들은 이곳에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곡식과 그밖의 물자들을 배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당분간 쓸 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곳의 샘물은 맑군데가 됩니다" 라고 대해가 말하였다.

"아무튼 어서 내려오시지요" 라고 그들을 받아들였다.

선주 말고 사공 몇과 중년남자 둘과 처녀 하나였다.

그들이 무욕도에 발을 디딘 다음 배는 닻 말고도 굵은 밧줄로 배의 맡군데와 섬의 바위너설에 매어 고정시켜 놓았다. 그런 다음 배 안의 물자를 널판을 오르내리며 옮기는 사공 세 사람을 남겨두고 도량 쪽으로 넘어갔다.

갑자기 섬 전체가 사람기운으로 충만하였다.

"손님들이십니다" 라고 만우행자가 말하였다. 소식행자도 눈을 크게 뜨고 "뭔 손님들일까?" 하고 중얼거리는데 우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고쳐주었다.

"손님들이 아닌 것 같네. 식구가 늘었어."

인담과 대해가 선주를 데리고 법당겸 선방으로 쓰는 곳으로 들어갔다.

인담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곳에 온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해가 선주에게 절을 하라고 일렀다. 선주는 인담에게 절을 한 뒤 대해에게도 절을 하려고 하자 대해가 그만두라고 하였다.

"꿈에 뵈온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

"실례이옵니다만… 꿈속에서… 한번은 대사께서 옷을 벗으시고 폭포에서 물을 맞으셨는데… 가슴에 점이 여섯개나 있었습니다."

이 말에 인담은 놀랐다. 바로 그의 가슴 아랫쪽에 여섯개의 좁쌀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선주의 영기(靈氣)가 상당한 것을 알만하였다.

인담이 입을 열었다.

"내가 인담이오만."

"대사님! 꿈속에서 … 가슴에 점이 여섯개나 …" 인담은 놀랐다

이들이었다.

이런 어린 행자들에게 인담이 풍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대해는 숫제 천태산의 구름과 안개노릇을 하고 있었다.

며칠동안, 음력 7월의 칠석(七夕)을 지난 뒤 햇빛은 저혼자 청명한 하늘과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심리 밖에서 앓고 있는 병자의 그 아픔까지도 다 비춰 보여줄 것 같은 햇빛이었다.

그런 햇빛 아래 세상은 고즈넉하였다. 대해가 우식 만우를 데리고 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곳에 가만히 흐르고 있는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대해의 눈길이 바다의 한 곳에 머물었다.

"배로구나."

"네?"

"네?" 하고 행자들도 까치발로 나무 사이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조용해야 한다…내려가 보자."

대해가 행자들을 뒤따르게 하고 이제까지 마음놓고 있던 천연스러움을 거두어들였다. 짐승이 낯선 짐승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은 중턱쯤의 능선에서 멈췄다. 배는 틀림없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도 돛이 두폭이나 되는 규모였고 그 배에는 서너사람이 배 앞쪽에서 섬 전체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았다.

대해로서는 그런 배에 대한 경험이 많았으므로 배의 정체가 궁금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해적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아니 해적선이라 해도 이 섬에 들이닥쳐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달빛은 밝고 밤배는 그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때 인담도 행자들과 함께 넘어와서 대해와 함께 선착장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어떤 영문인가 하고 있었다.

배에서 선장이 먼저 내렸다. 닻을 내린 뒤 뱃머리에서 길다란 널을 물에 걸쳐놓아 그곳으로 내린 것이다.

대해가 먼저 물었다.

"선장이십니까?"

그가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배 임자입니다."

"그렇다면 회회포의 부자로군요" 라고 대해가 잘 짐작하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거듭 말하였다.

"인담대사께서 정녕 이곳에 계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저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

"대사님!" 하고 선주가 갚은 경의를 내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게 줄줄 입에서 말이 나왔다.

"저는 회회포에서 배 일곱척을 부리는 선주 곽일우의 막내이옵니다. 이름은 효영(曉永)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몹시 앓았습니다… 그렇게 앓는데 이따금 제가 알지 못하던 고조할아버님도 나타나고 백제의 어떤 왕도 나타나고 하다가 고려의 노승도 나타났습니다. 그 노승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거기 폭포 언저리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대사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대사님이 바다위로 걸어가셔서… 한 무인도에 계셨습니다."

"……."

그림 · 조 향 숙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 좌욕기 "탄 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무인병, 냉 · 대하, 변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월수증작후, 임증 및 할백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 · 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 · 가슴 군살제거 명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질력감퇴 발기부전, 변노, 전노, 소변곤란, 배노통 등



★ 엉덩 피부가 거친분, 여드름 기미가 많은 분은 엉덩을 화대위에 놓고 발정하십시요. 피부가 훈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팔, 다리에 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화대위에 올려놓고 황토, 쑥찜질을 하십시요. 놀랍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 료 원 리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질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성에 거처하여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영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이성태가 오래되면 혼갖 무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경,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협액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머들면 만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상위일체로 합체된 인체조직 과괴와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정결하게 소독시키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균을 살균시켜 혼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치료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앓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 · 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약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정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1 화대 (좌욕대) : 황토를 주원료로한 무칠 자기로 화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힘이 더욱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공을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열량으로 화대가 뜨겁게 되므로서 황토방에서 불랜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내열탕기 : 질병에 대한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0%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제(陶磁劑)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뿔의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3 약쑥 : 쑥은 약쑥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해풍(海風)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 엄선하여 골라내 준비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디에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입분)

4 100%황토가루 : 「본초강목」「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였을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무입도록 하였습니다.

5 내열탕기에 약숙과 황토가루, 물은소금을 넣고 끓여서 황토방찜대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6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특별보급 가격 : ₩ 230,000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해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안상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 ·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버근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술 · 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 · 군 · 구지회 미개설지역 · 방문 및 전화상담

■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39-1906/ 야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환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동:485—3859 강남:553—028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8430 은평:305—2910 도봉:942—8430 종로:747—7033 노원:942—8430 마포: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영등포:782—5080

경기지역 : 인천 : 연수구(032)817—1567, 813—8264 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광주:(0347)65—1047 용인:(0335)35—4293 과천:(02)503—9352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474—2628 대전(042) 중구:222—4936 서구:534—4211

경남지역 : 마산:(0551)23—9018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2)74—7536

광주(062) 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0652)75—8733

경북지역 : 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 제주시(064)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독 자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제안·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나우누리 : sutta
부다피아 인터넷 : gobaoou@buddhapia.co.kr

현대불교를 읽고

3국불교대회 결의안

난민구제등 동체대비 말보다 실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의 관련 기사를 읽고 몇가지 느낀 소감을 적고자 한다.

이번 대회에서 3국은 지구촌의 환경보전과 난민구제, 문화교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 가운데 환경보전과 난민구제방안으로 매년 3국을 순방하며 '자연환경보전 국제교류우호 세계평화기원회'를 봉행한다는 것에 대해 한번 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제는 환경문제가 어느 한나라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환경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불교계가 지구촌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을 바탕으로 세계는 한가족이라는 명제앞에 언어와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환경보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한가지 제기한다면 간혹 이러한 사안들이 행사를 위한 계획에 그치고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대회에서 채택된 이러한 안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불교의 발전과 지구촌환경살리기에 일조를 하기 바란다.

〈조성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교인구 2%증가

남자불자 신행기회 확대방안 필요

지난 9월 11일자 불교인구가 늘었고 그중 남성불자들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읽고 실로 공감한다.

최근들어 도심포교당을 비롯 사찰에는 예전과는 달리 여성불자들뿐 아니라 남자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 가정에도 지금까지는 저 혼자 절에가 공양을 올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를 해왔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여겨온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사찰에서는 초하루, 보름, 관음기도뿐만 아니라 각종 법회와 교양대학이 열리고 있어 남자들에게도 보다 더 많은 신행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인해 사찰에 가면 멋적어 서성이던 남자들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도와 신행, 사회활동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다.

특히 불교의 맹점으로 남아있었던 거사들에 대한 포교전망을 밝게 해줬다는 사실에 대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교계지도자들은 남성불자들의 수가 늘었다는 숫적 증가에 안주하지 말고 남성들을 위한 신행활동의 장을 더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보리행·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염주·경전등 곁에두고 '나는불자' 자긍심 갖자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들은 대부분 신행활동에 있어 소극적인 것 같아 안타깝다.

부처님 도량을 찾는 불자들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소극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주문에 와서야 염주와 경전을 핸드백 속에서 꺼내들기 시작한다.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다. 불자들끼리 만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합장을 할까말까 망설이기 일쑤다. 그래서인지 포교에 대한 가치인식과 활동은 너무나 미약하다.

굳이 타종교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는 불교도 사회의 일각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만중생을 구제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불자들의 사고방식이 일신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재권·경기도 남양주시〉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자비행 기대

어느새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팔월한가위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너나할것없이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향해 있고 유명관광지나 해외여행의 꿈으로 부풀어 있다. 하지만 우리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명절이 다가오면 오히려 더 쓸쓸함을 느끼는 이웃들이 의외로 많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행을 강조하셨다. 불자라면 이러한 민족의 최대 명절에 이웃을 한번 살펴보자. 아들같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고사리손으로 라면을 끓여 끼니를 잇고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공원이나 경로당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만행의 근본으로 여겨왔던 효(孝)사상이 어느새 퇴색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김성구·경북 경주시〉

'가족법회' 개설사찰 유아놀이시설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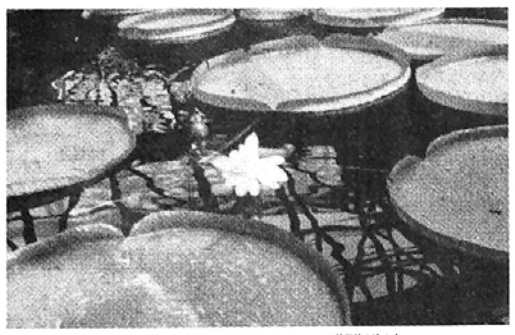
최근 '가족법회'라는 가족단위의 법회를 마련하는 사찰이 늘고 있으나 부대시설은 부족한 것 같다.

유익한 가족법회가 열린다는 이웃 불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 일요일 가족법회에 동참하게 됐다. 그러나 법회의 운영은 기존 법회와 유사했다. 다만 법회명과 성별이나 남녀의 구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밖에는 별다른 차이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을 위한 이러한 법회를 이끌고자 준비한 사찰측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법회에 참석했다.

법회가 이어지는 동안 사건(?)이 발생됐다. 한 아이가 울음을 터트린 것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감로수와 같은 주지스님의 법문에 귀기울이며 조용한 법회장이 갑자기 어수선해진 것이다. 우연하고 당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법회에 참석한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됐으면 이러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회장에 유아들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찰측에서 유아들을 위한 조그마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러한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원상·대구시 수성구〉



독자사진

세계서 가장 큰 연잎

세계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빅토리아 수련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일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여미지 식물원에서 꽃망울을 터트렸다. 희귀종인 이 수련은 주로 남미 아마존강 유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직경 2m의 잎에다 꽃은 직경 10~20㎝로 순백색으로 꽃핀지 하루가 지나면 진홍색으로 변한다. 〈사진=한라불교신문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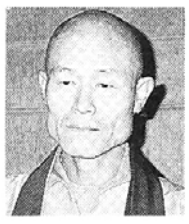
나의 제언

'재적사찰 갖기'의 과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종교와 각종 공사조직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 난립하고 있다.

특히 종교간의 신도확보 경쟁은 사회가 점점 조직적이고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른 분야처럼 체계적으로 신도관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재적사찰갖기'와 '신도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시의 적절한 불사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재적사찰갖기'와 '신도등록사업'이 좀더 체계적이고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신도교육 및 조직의 활성화문제다. 신도관리는 기존의 신도들을 관리한다는 시각만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신도를 발굴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자세가 적극 필요하다.

스님들이 불교의 대중포교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며 신도들의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법회와 행사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몇년 동안 도심의 포교당(원)에서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각종 법회를 통한 새로운 신도를 확보해 나가면서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구현과 불교의 사회적 봉사활동을 통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인식전환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또 조계종 총무원과 교구본사 및 단위 사찰이 상호협력하여 신도관리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신도관리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종단차원에서 각종 지원과 포교자료가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재적사찰갖기'와 '신도등록사업'의 성패는 사찰주지와 소임자 그리고 재가신도들이 종단의 근본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 앞으로 불교최대종단인 조계종이 새롭게 태어나 불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종후·고양 노적사 주지〉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항 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지리산 수행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연면(지리산줄기) 산새수려 주위의 폭포
토굴터로서 수행 정진의 최적지
연락처 : 0671-33-8918

절터 최적지
장소 : 청평 덕현리 정남향 국도 800M 경관수려
평수 : 2785평(일부대지) 평당가격 10만원
연락처 : 0346)594-4974

사찰안내
개인사정상 사찰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위치 : 충남
비용 : 1,500만원
연락처 : 0463-32-280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가족과 함께하셔도 무방하고 가족중에 몸이 아프신 분은 스님께서 약초로 보살펴 드립니다.
청명암 연락처 : 0374-34-1652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도심속의 포교총림
"부루나 포교원"에서는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 부루나 포교원 대중 합장 -
Tel : (032)576-9741
인천시 서구 가좌동 3동 84-5
대한불교조계종 부루나포교원

사찰안내
산세 수려청정한 곳에 사찰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목포중심지
■ 법당 : 23평, 요사채 : 20평
■ 건평 : 200평
■ 물 지하수, 교통편리
■ 비용 :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 (062)525-4417
011-579-9865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함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동불·탱화 순금불사·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사찰 및 古殿 建築木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목재(원목) 수입판매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삼원B/D(을지로 2가)
문의 : 02)266-2629, 팩스 :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포교당 양도
▶ 구리시 중심가 최고 요지
▶ 9년 전법 도량
▶ 약 40평 (100~150명 법회가능)
▶ 비용 : 4,000만원(상담)
일신상의 이유로 급히 양도코
관음정사
전화 : 0346)67-2812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5-1
박인성 법사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융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과거를 읽자" 교양역사책 '봇물'

올 3백여종 출간…답사기·신문형식등 다양
흥미위주 구성 불교내용 논란소지 있어

최근 역사를 쉽게 풀어쓴 대중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만해도 3백여종이 넘는 역사서가 출간되었으며 내용·서술형식도 다양해 독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양역사서가 불교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 '불교 알리기'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피소드 중심의 역사교양서다. 〈한국고대 지성사산책〉(백산서당) 〈역사속의 역사읽기〉(풀빛) 〈이야기 한국사〉(청아) 등이 그것이다. 각 시대별 국가별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나 잊혀졌던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의 시대상황이나 그에 따른 영향까지 서술해 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역사를 읽게 한다.

대중적인 관심을 끈 불교역사서도 있다. 김상현교수의 〈역사로 읽는 원효〉(고려원) 〈한국불교사산책〉(우리), 혜봉스님의 〈불교사 100장면〉(가람기획), 김현준씨의 〈이야기 한국불교사 1〉(효림), 정의행씨의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밀알)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인물중심의 서술을 시도한 책으로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여강) 〈이야기 인물한국사〉(청아) 등과, 우리 역사를 보다 생생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타블로이드 신문형식의 〈역사신문〉(사계절), 유적답사기형식의 〈한국역사기행〉(형설), 한시(漢詩)로 엮은 〈한국사 기행〉(범우사) 등 다양한 유형의 역사교양서들이 우리 역사를 재미있고도 쉽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교양서 출간 붐'은 역사 읽기의 대중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학문적 연륜이 짧은 소장 학자들 중심으로 젊은층의 독자를 겨냥해 흥미 위주의 추측성 글을 쓰다 보니 '역사의 소설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특히 불교관련 내용의 경우 지나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차제에 불교사 서술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100문100답 한국사 산책〉(백산서당)의 △묘청은 정말 승려였나(승려가 아니라 도교의 도사였다) △신돈은 과연 음탕한 승려였나(정치적 희생양으로서 승려 출신이었을 뿐이며 장발이었다) 등의 내용과, 〈한국고대사 산책〉(역사비평사)의 △신라 이차돈은 순교자인가(당시 巫敎를 신봉하던 귀족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숙청되었다가 불교 공인후 신비화되었다) 등 한국 불교사상 중요한 사건을 다루기 보다는 흥미위주로 소재를 선택한 흔적이 엿보이는 책도 있다.

이와관련 한국교원대 김상현 교수(한국사학과)는 "최근의 역사교양서들이 학자와 일반교양인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한 반면, 기본사료와 학문적 연구성과를 소홀히 한 흥미위주의 야사류·소설류의 책도 적지 않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불교사학계는 일반 대중과 불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역사서를 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생활속 불교 정리 "불법 손에 잡힐듯"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마음으로 읽는 책

혜원스님(한마음선원 주지)이 은사인 대행스님의 법어를 정리해 엮은 〈삶은 苦가 아니다〉는 불교가 어렵고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이치, 생활의 이치를 통해 자연스레 드러나는 진리'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사람들이 막연히 불교는 어렵고 현상적 삶의 가치들을 하찮게 여긴다고 오해하고 있는 관념을 없애준다. 불교는 결코 어렵지 않은 종교로 조금만 눈을 돌려 배워볼 생각을 한다면 불교처럼 쉽고 분명하여 배우는 가르침이 따로 없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 책은 불법의 세계에 처음 들어온 입문자는 물론 삶의 고난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활속에서 실천가능한 법을 중심으로 여러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풀어 쓴 법문이다. 따라서 어렵다거나 딱딱하다는 느낌보다는 손에 잡힐 듯이 가깝고 쉽다는 느낌을 준다.

대행스님의 "한번 입을 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이 우주 법계에 속속들이 메아리치는 말 한마디, 그런 말을 해야하고 또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설법은 이 책의 무게를 가늠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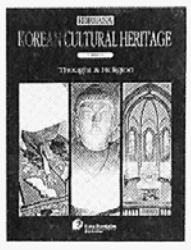
〈여시아문 6천원〉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의 법어집이 지난 15일 서울대법회를 기념해 출간됐다.

출판학계

'전통사상과 종교' 영문판 발간

국제교류재단 불교등 한국사상흐름 분석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정원)은 '해외에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문화유산 시리즈' 제2집 〈전통사상과 종교(Thought & Religion)〉(영문판)를 발간했다.

제1집 〈전통미술〉에 이어 나온 이 책은 국내의 권위있는 학자·전문가 29명이 집필했으며 개관, 사상일반, 불교사상, 마을제, 무속신앙, 현대종교 등 7개부문에 걸쳐 우리 사상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했다. '불교사상' 편에는 △한국불교-회통(정병조) △불교전설-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밝혀라(최래옥) △禪-한국선(현각스님) △불교와 초기 한국문학(이종찬) △사찰건축에 보이는 불교사상(법총스님) △현대 한국불교의 문제(이은윤)등 모두 8편의 글이 실려 있다.

유경노씨 소설 '서포 김만중' 펴내

〈구운몽(九雲夢)〉의 저자 김만중의 일대기를 소설로 꾸민 〈서포 김만중〉(청한문화사刊)이 출간됐다.

美라이나생명보험 부사장을 역임한 작가 유경노씨가 쓴 이 소설에는 조선사회의 격동사 속에서 서포가 겪는 파란만장한 삶이 소설적 재미가 곁들여 그려져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김만중은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번화시키는 문학의 효용론을 미리 알고 실천한 지혜로운 문학가"라고 평가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화	좋은인연
3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4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5	생활참선 건강법	박희선	문 창
6	한국사찰의 주련	권영한	전원문화사
7	훨훨털고 같이 가세	서 암	정 토
8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9	영원한 대 자유인	강정진	경서원
10	신도포교지침서	오성일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최고 경영자의 책읽기 고승철 지음



재계대표 38인의 내면세계를 살피기 위해 그들의 독서행태를 분석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향신문 고승철 기자가 쓴 〈최고경영자의 책읽기〉가 그것.

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즐겨 읽는가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임창욱 미원그룹 회장이 청화스님(태안사 조실)의 〈정통禪의 향훈〉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형권씨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를, 강병호 대우사장이 유홍준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김준성 이수그룹 회장이 하루야마 시게오의 〈대뇌혁명〉을 각각 감명깊게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만드는집 8천5백원〉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 나와누 닛코 지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불경인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은 방대한 내용과 어려운 한자로 인해 원문의 뜻을 명쾌하게 해설한 번역서가 많지 않다. 서강대 길희성교수가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해설했다. 특히 〈법화경〉 전체를 '인간주의의 가르침'으로 파악,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점이 돋보인다. 저자 니와노 닛코는 1938년 재가불교교단 '입정교성회'를 창립하고 1979년 템플턴상을 수상한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 庭野日敬 명예회장. 입정교성회는 8백만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로 재일동포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

〈경서원 2만원〉

화제의 책

재계인사 38인 독서행태 내면 분석

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산을 담은 집적체'란 점에서 이 책은 다양한 독서 경험과 이를 통한 상상력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이

일불승 가르침 현대적 의미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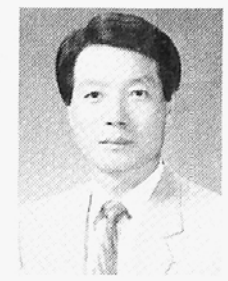
명사추천 불서 100선

'사십이장경'

쉽다고 추천해 준 불서까지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이 30년전 불교를 공부하던 나의 초심시절의 기억으로 새롭다. 그럴즈음 내가 읽은 한 권의 법공양판 불서는 불교학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던 나를 불교학으로 안착케 한 계기가 되었다.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현재 역경원장으로 계시는 월운(月雲)스님의 역서(譯書)인데 〈불조삼경(佛祖三經)〉이란 제목으로 장정이나 체제도 불품없는 석판본(石版本)이지만 지금도 내 서재 한쪽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불조삼경〉은 원래 〈유교경(遺敎經)〉·〈사십이장경〉·〈위산경책(爲山警策)〉을 지칭하는 것이나 이 책은 〈사십이장경〉에다 〈유교경〉과 〈위산경책〉대신 〈분별업보약경(分別業報略經)〉과 〈수심결(修心訣)〉을 합본해 놓은 것이다. 어느것이건 불(佛)·조(祖)의 가르침이 너무 방대하여 초학자의 배려로 낙양의 교외에 백마사가 창건되자 여기에서 역경에 종사하게 된다.

중국불교의 초전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불조통기(佛祖統紀)〉의 설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사람, 백마사는 중국 최초의 절로 기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최초로 한역된 경전이 바로 이 〈사십이장경〉이기 때문에 중국



최 성 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

불교근본 가르침 간략히 서술
비유 곁들인 中최초한역 경전

아닐까만 이왕이면 전통적으로 불러오던 그대로 엮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불자로서의 성숙을 가져다 준 이 경에 대한 애착때문이리라.

이 경이 중국에 전해진 데는 여러 이설이 있으나 중국불교의 초전을 거론할 적에 반드시 언급되는 중요한 경전이다.

후한(後漢)의 명제(明帝)는 영평(永平) 10년(서기 67) 서방으로부터 금인(金人)이 방광을 하면서 궁전의 마당에 내려오는 꿈을 꾼다. 군신들로부터 서방에 불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채음·진경·왕준 등 18인을 보내 불법을 구해오도록 했는데 중도에서 백마에 불상과 경전을 싣고 동행하던 가섭마등과 축법란을 만나 채음 등은 이들을 맞이하여 돌아온다. 처음 이들은 영빈관인 홍로시에 머물게 되었지만 명제에 전해진 최초의 경전인 동시에 최초의 한역경전이란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이 경에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 42가지가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아함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칫 대승의 가르침이 소홀하게 취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끝까지 읽어가노라면 대승의 자비·인욕·보시는 물론 참회에 대한 내용까지 게송이나 비유로 적절하게 설해져 있다.

또 선종의 돈오사상도 포함하고 있어 선가의 사랑을 받아 〈불조삼경〉으로 존숭되기도 하였다. 경전이 어렵고 복잡하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도 조촐한 밥상을 대하듯 부담없이 불교에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경전이 이 〈사십이장경〉이다.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법구경 ① ②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셔 지음 /손민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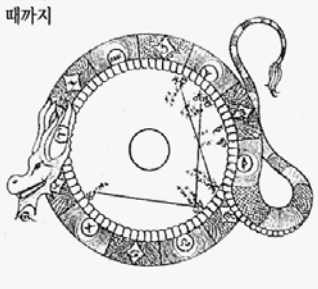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셔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280면/값 6,000원



태일출판사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지난 17일 열린 김교각展 개막식에서 교각스님이 신었던 지장혜를 관람하고 있는 조영록 동국대교수 이수성 국무총리 남시욱 문화일보사장 김명윤의원 석주·법흥스님(오른쪽부터). 〈사진=고영배 기자〉

지금 경복궁 민속박물관에선

신라왕자 김교각스님展

17일 '개막'…11월 29일까지 전시

1200년만에 고국에 환생한 신라왕자 김교각展이 지난 17일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식을 갖고 개막됐다. 석주(조계종 원로) 법흥(원효종 종정) 암도(전 조계종 포교원장) 무구(수효사 주지)스님, 이수성 국무총리 김명윤의원 김영수 문체부장관 조유전 민속박물관장 남시욱 문화일보사장 등 정·재계 종교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김교각展추진위원장 김명윤의원은 인사말에서 "가장 숭고한 육신불이 된 김교각스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잃어버린 한 성인을 되찾는 일일 뿐 아니라 불자들의 신심을 다스리는 소중한 인연의 장"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문체부장관은 축사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교각스님을 이제야 한국에 모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번 전시를 가짐으로써 교각스님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한편 1300년전 한국과 중국의 불교문화교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29일까지 경복궁 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김교각전에는 구화산에 소장돼 있는 교각스님 관련 유품과 사진자료 등 총 2백여점이 국내 최초로 전시되고 있다(본지 94호 18·19면 참조). 특히 구화산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교각스님의 등신불을 본떠 만든 지장보살금동상과 교각스님이 신은 것으로 전해지는

부산·대구·광주등 지방행사 준비
학술회의·10월 구화산순례 계획도

지장혜, 명대 무하스님이 혀와 손가락의 피를 내어 금가루를 섞어 필사한 화엄경 등이 눈길을 끈다.

김교각전추진위는 지방에서도 전시를 가질 예정이며 10월중으로 지장스님관련 대규모 학술회의, 구화산 성지순례(10월 21~27일)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문의 722-4147(추진위), 313-3060(수효사)

고침 94호 18면 기사 제목과 내용중 9월 17~20일을 9월17~11월29일로 바로잡습니다.

"여권신장 종교역할 기대"

東大 한국문학연구소 '한국여성의 문학적 초상' 세미나

소설속 여성 '제도순응' '정체성' 두드러져
"불교 不二사상은 여성편견 해소 돌파구"

'여성문제는 바로 그 사회의 문제'라는 말처럼 90년대 들어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비평적 담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직결되는 문제일 뿐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문제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소장 홍기삼)는 동국대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지난 19~20일 양일간 개교 90주년기념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남북한 및 재외 한국인 문학에 나타난 한국여성상의 전형과 변화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한국문학의 어떤 특질을 반영하는 가를 모색하기 위한 '현대 한국여성의 문학적 초상'을 주제로 대규모 학술회의를 가졌다. 여성들이 문학작품속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된 이번 회의에서 여성문제의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현대사회변동의 바로미터의 하나이며 그것은 종교가 가장 주목해 마땅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장정일 윤대녕 김원우 등 남성작가들의 작품과 대표적인 여성작가들인 식민지시대의 강경애 최정희부터 임옥인 박경리 손장순 박완서 김만옥 오정희 서영은 윤정모 이순 강석경 김향숙 신경숙 등의 작품들에 나타난 여성들의 이미지를 박혜경(명지대) 서정자(초당대) 이태동(서강대) 이상경(과기대) 조남현(서울대) 권택영(경희대)교수 등이 각각 분석 발표했다. 박혜경교수는 "남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속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성중심의 사회제도라는 근본적인 타자성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동교수와 이상경교수는 "소설들이 여성에게 억압적인 한국사회의 여성의 구체적 현실자체를 문제삼고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탐색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여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남성들에 의해 억압받고 유린당하고 있지만 성(gender)을 초월한 생명력을 잉태해서 생성함은 물론 우주의 모든 표상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지배하는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현교수는 산업화시대의 여성들이 남성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제도에 순응하거나 모성으로서의 여성성을 긍정하고 있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은 △남성성과 대립하는 것 △행복을 위해 남성성과 일체감을 도모하는 것 △다른 여성성을 부정하는것 △모성으로 나타나 아들로서의 남성성을 포용하는 것 △남성들의 보조적인 기능을 자인한 것 등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한 홍기삼교수는 "여성신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여성문제에 소홀해왔다. 불이(不二)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여성문제에 본격 뛰어들어 올바른 방향으로 푸는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불화·조각등 65명 작품 공개합니다"

10월 8~27일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서 문화재기능인작품전 여는 전흥수 회장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사랑하는 장인들이 과거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과 문화유산을 보수 수리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틈틈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널리 홍보하고자 회원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덕수궁내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제3회 '문화재수리기능인작품전'을 여는 (사)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전흥수회장(59)은 이렇게 설명하며 많은 이들이 와서 보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번 작품전에는 전흥수회장 등 65인 회원들의 조각 불화 공예 등 130여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복원수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목공 석공 화공 드잡이공 와공 미장 철물 조각 칠공 도금 표구 조경 보존과학 등 총 16개 분야 1천4백여 기능인중 협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5백여명.

"기능인들의 친목을 한층 도모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및 학술 교양사업, 연구사업등에 매진해 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히는 전흥수 회장은 평생을 고건축과 함께 해온 도편수로 수덕사등 전국의 문화재복원 수리에 지난 35년간 참여해왔다. 문화재 수리에 평생을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28일 정부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숙〉

아시아 1인극 대가 '한 자리에'

공주서 10월4~6일 공옥진씨등 13명 참가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씨 판소리 명창 박동진씨 타악기연주자 김대환씨 팬터마임 최규호씨 등과 일본의 고규미 인도의 아쇼타 차텔리, 중국의 왕대순씨 등 아시아의 1인극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공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 1인극제에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지아 베트남 등에서 활동중인 전진예술가 13명이 참가해 각나라의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야기들을 담은 다양한 개성을 보여준다.

공옥진씨는 심청전의 애달픈 사연을 특유의 춤으로 풀어내고, 인간문화재 박동진씨는 '진국명산'을, 김대환씨는 '흙소리'를 연주하며, 최규호씨와 이두성씨가 무언극 '먹고 삽시다'와 '새 새 새'를 공연한다. (02)736-6818.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씨.

기원

공보처와 한국언론회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 '사진으로 본 한국 한국인' 사진공모전에서 한국인의 생명력을 포착한 '담소(임계환 작)'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계일류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불교소재 '기원(전현오 작·사진)'이 동상으로 선정되는 등 101점이 입상(총 2993점 응모)했다. 시상식은 10월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입상작들은 10월7일~15일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영산재 「장엄한마당」

'한국의 소리와 몸짓' 다섯번째 무대이자 '굿과 범패' 시리즈의 마지막 공연인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식당작법이 지난 15일 예술의 전당내 한국정원에서 결행됐다.

송암 벽응 일응 지광스님과 영산재보존회 일운 구해 성오 운봉 성일 동희 법현스님 등 20여 스님이 참여한 불교전통의식 영산재의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모습에 1천여 관객들은 찬탄을 금치 못했다.

불심시심 〈64〉

헛된 이름 그것은 나그네

枯木閑雲伴此身 (고목한운반차신) 마른나무 한가로운 구름은 이 몸의 짝
夢寒青紫畵麒麟 (몽한청자화기린) 꿈에도 멀리한 기린각에 오른 벼슬
淸貧易得牛衣暖 (청빈이득우의난) 가난에는 쉽게 얻을 쇠덕석의 따뜻함
豪宕難忘蟻夢春 (호탕난망의몽춘) 호탕하면 잊기 어려운 술통 속의 봄
庭噪雀啅狐試客 (정광리소호시객) 뜰 비고 움 성글어 여우는 손님 시험하고
殿空擔短鳥窺人 (전공첨단조규인) 법당 비고 처마 짧아 새는 사람 엿보다
可憐世上求名者 (가련세상구명자) 가련타 세상의 이름 찾는 이
不識浮雲是實賓 (부식부운시실빈) 헛된 이름 뜬 구름의 나그네임을 모르네

설암선사가 성호(性皓)스님에게 준 시이다. 스님이기에 저절로 어울려지는 자연과 하나됨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 시는 세속의 명리를 구하는 헛된 이들과 대비해서 스님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더더욱 실감나는 시가 되었다.

산사를 중심으로 자라는 나무가 굳이 고목일 리가 없지마는 이 시에서 마른 나무로 첫 구절을 삼은 것은 어쩌면 스님의 고고한 그 자세를 우선 대비적으로 거론해서 앞으로의 시 구성에 자연스러움을 예비하는 작자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스님과 동반되어 있는 고목이요 한가로운 구름이다. 스님과 짝이 되었기에 한가로운 것일 것이다. 그러니 청자(靑紫)로 상징되는 벼슬의 인끈이나, 전한의 선제(宣帝) 때 기린각에 공신 11명을 새겼다는 이 영달이 꿈에서도 오히려 흡게 느껴지는 것이 스님의 삶이다.

비록 이불도 없는 가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의 덕석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이 덕석의 따뜻함이 오히려 근심없는 편안한 삶이고, 술동이에 떠있는 술지거미의 개미밥이 호탕을 사랑할 수 있는 산 속의 봄이다.

가진 것 아무 것도 없으니 뜰도 비었고 도적을 방비해야 할 일이 없으니 울타리가 성글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낮에도 산짐승이 내려와 나그네를 시험하고, 빈 집의 짧은 처마이니 새가 날아와 사람의 있고 없음을 엿본다. 산사의 한적함을 여실하게 묘사한 시이다.

이런 정경과 대조되는 이 산문 밖의 속세는 어떠한가. 사람 사람이 모두 명리를 찾기 위하여 분주하다. 그러나 이름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사람이라는 실제의 허상에 불과하다. 내가 주인이라면 이름은 나그네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나그네를 그렇듯 좇고 있다 함은 나라는 실체가 부실하기에 이름인 객체로 도장하려는 어리석은 보상심리인지도 모른다. 명리를 여의고 티없는 자연과 이웃한 성호스님이 부럽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대학로 서울두레서 10월 2~13일 공연

마당극 '신새벽 술을 토하고…'
원효스님 구도의 삶 조명

놀이패 한두레와 극단 자갈치는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학로 서울두레에서 원효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창작 마당극화한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를 공연한다 (평일 저녁7시30분, 토·일 4시 7시).

채희완씨(세계 마당극큰잔치 '97경기' 예술감독)가 연출하고 최태현씨(중앙대 교수)가 음악, 김봉준씨가 미술을 맡고 박정곤씨의 안무로 결쳐지는 이번 마당극에서는 민중속으로 들어가 구도실천을 행한 한국불교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대중교화의 선구자인 원효스님의 삶과 사상이 오늘의 시각에서 재조명된다. (02) 468-1935

여시아문의 새책

불교를
머리로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왠지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모든 행운이
나만 비켜 가는 것 같을 때,
이유
없이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세상
모든 일이 고통으로 느껴질 때
이 책을 보십시오.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구미 교사불자회 12일 창립

14개교 39명 동참…학교마다 불교반 개설 추진

매달 법회·사찰순례 통해 신심증장

교사들의 신심을 증진하고 청소년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지역교사불자회가 결성됐다.

경북 구미지역 교사들은 지난 12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구미불교 교사불자회 창립법회를 개최하고 교사들의 신앙증진을 통한 청소년포교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3개월전부터 구미사암연합회(회장 법등)와 함께 준비작업을 벌여온 구미불교 교사불자회(초대회장 김해룡 금오공고 학생과장)는 창립과 함께 구미지역 14개교 39명의 교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미불교교사불자회 창립법회가 지난 12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들이 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구미교사불자회는 앞으로 1년간을 교사들의 불교교리 함양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분과별 교리연구와 교사간 친목도모, 불자학생 지도프로그램마련등 자체수련 및 교리발표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매달 둘째주 목요일 법회를 개최하고 넷째주 목요일은 전통사찰 순례를 갖기로 했다. 이어 교사불자회는 2차사업으로 창립목표인 청소년 포교를 위해 구미시 중고교에 불교학생회를 창립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미 교사불자회는 창립에 앞서 지난 6월30일 구미 사암련과 도리사에서 관내 중·고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조산 일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 홍보활동을 벌여 지역교사 및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바 있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4개학교에 불교학생회가 조직돼 있으며 1차로 실업계 학교를 대상으로 불교반이나 문화재 연구반을 조직키로하고 10월중 해평상고에 불교반 창립을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경북지역 교사불자연합을 창립하자는 움직임도 폭넓게 일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상주불교 교사불자회가 활동중이며 구미불교 교사불자회와 합동법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내 창립을 서두르고 있는 김천불교교사불자회의 창립준비에도 서로 지원키로 해 인근지역단위의 불교교사불자회 창립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러한 활동은 전국적인 불자교사연합 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우 기자



◇해인사 강원 학인 1백여명이 14일 대적광전에서 해인총림 수호를 위한 무기한 단식철야정진기도 입제식을 거행하고 주지실을 방문 요구사항 유인물을 부착했다.

慧庵 방장

전 대중 3천배 참회하라

해인사강원 폐강 실마리 못찾고 갈등

해인사 강원 폐강사태 해결을 위해 종회특위, 교육원, 승가대동문회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갈등양상이 계속되고 있다.(19일 오후 6시 현재)

지난 11일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강원을 폐강키로 결정하자, 해인강원 및 전국승가대소속 학인 1백여명은 14일 해인사에서 '골프장 전면백지화 원만성취 및 해인총림수호를 위한 무기한 단식철야정진기도 입제식'을 거행했다. 이날 학인들은 대적광전에서 해인강원 폐강조치 즉각 철회와 종무행정 담당자들의 사퇴를 주장하며 50여명이 무기한 단식정진에 들어갔다.

이어 17일 해인승가대 동문회 임원 및 중진스님들은 대구에서 해인사 사태를 논의하기위한 회의를 갖고 해인총림비상대책위 공동대표로 수진스님(前 해인강원 강주)과 보광스님(해인동문회장)을 추대했다. 이날 해인동문들은 △해인사 주지이하 7직 해임 △증앙종회 총림법 개정 △해인사 사중의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입장천명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골프장 건설저지운동을 위해 동문회기금 1천만원을 해인골프장 저지 집행위원회에 기증키로 했다.

이에앞서 16일 해인사 주지 성법스님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인사 사중은 가야골프장건설 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종무소가 강원의 강주, 학감과 입승인 일경, 지산스님을 해임 퇴방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인사권자인 방장스님에 대한 항명이며 현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인사 가야총림 방장 혜암스님은 지난 17일 원로회의에서 "해인사문제는 학인주장만 듣지 말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며 해인사 사퇴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무소 강원 선원스님들이 3천배 참회로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종회 산하 해인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법등)도 19일부터 해인사에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원도 19일 교육원 산하 3개 위원회와 전국 승가대 교역자 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강원 폐강 철회를 촉구키로 결의했다.

한편 여러 문도가 모여서 원융살림을 꾸려온 해인사의 실정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는 일과성이 아니라 뿌리깊은 문제가 곪아터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무소와 학인스님들의 한치 양보도없는 팽팽한 주장에 비춰볼 때 타협은 물건너간 상태이다. 타협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전국승가학인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행자교육원의 조기 종료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킨 이번 사태는 어느쪽으로 결말이 나든지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종무소 '4인 퇴방 거부' 인사권 정면도전

학 인 집행부 독선 반발 7직 해임 요구

종회특위·교육원·동문 '타결방안' 모색

조계종 행정전산화 구축 '박차'

개발업체 선정…인터넷 웹서버도 준비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행정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업체를 선정하는등 중앙종무기관 종합전산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1월 중앙종무기관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한 총무원은 종무행정관련 프로그램 개발업체로 이현데이타 시스템을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전산망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종무행정 프로그램은 기획감사, 문화사회, 총무승적, 재무회계, 교육원, 포교원, 종합관리 등 7개 기관 20여개 프로그램으로 총무원의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분야별로 검색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특히 2천여개의 사찰에결산은 물론 각종 통계, 승·재가관리 등을 일목정연하게 관리하게 된다. 총무원은 인터넷에 웹서버를 설치해 본말사와 연계하고 일부 자료는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종합전산망구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유지호 과장은 "전산망이 본격 가동되면 종무행정업무의 원활함은 물론 정확한 기초자료확보와 분석으로 불교계 권익보호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총무원은 2억원여원의 예산으로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추가비용없이 본말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엽〉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 김학선 회장



"방송분야에 종사하는 방송사간 직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불교의 정확한 전달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창립(**본지 83호 보도**)한 전국방송불자연합회 회장 김학선씨(KBS 불교연구회회장)의 말이다.

전국방송불자연합회는 지난 5월 첫 준비모임이후 KBS가 지방국을 포함 총361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이어 MBC 불교연구회가 55명, SBS불교연구회가 30명의 회원을 주축으로 창립의 성과를 이뤘다. 창립준비과정에서 가장 선배격인 김회장이 지난 7월에 3사가 함께 조계종 총무부장 혜창스님을 모신 최초의 합동법회를 주선하는 등 불심양면으로 노력해왔다. 김회장은 "앞으로 방송사간의 정기법회 정착과 더불어 BBS btn등 불교계 언론기관과도 돈독한 우애를 쌓을 계획"이라면서 "회원들과 함께 불교공부도 더욱 체계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방송불자회의 단합된 힘을 불교문화진흥사업을 통해 펼쳐보일 생각입니다"라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은〉

방송사간 정기법회 정착 앞장

대만 우란분절행사 '성대'

내년부터 국가차원

목련존자의 효행 함양과 세계불교의 교류를 위한 세계공불제승(世界供佛齊僧)대회가 지난 1일 대북의 임구중정(林口中正) 실내체육관에서 4천여스님 등 1만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대회는 '대만미타세계(臺灣彌陀世界)'의 오공(悟空) 법사가 주최하고 대만불교협회가 지원했다.

〈우란분절경〉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시킨 우란분절 행사로 사부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킨 이번 대회는 증명법사 정양장로(淨良長老)의 청정의식과 독경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목련존자를 기리기 위해 4천여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하고 사회안정과 세계평화를 축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보성스님(송광사 율주)을 비롯 10여명의 스님들은 수계의식을 집행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규모가 커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국가차원에서 할 예정이다. 〈욱〉

올림픽불자스타 방송나들이 '바쁘다'



◇김영준씨



◇박장순씨

박장순씨 KmTV 고정출연 김영준씨 빠떼루 열풍

김경욱·조민선·전기영·심권호씨 등 '시청자들 기억'

96애틀랜타 올림픽이 배출한 또다른 불자스타들이 TV화면을 종횡무진 달리고 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불자 레슬링스타 박장순선수가 이달초부터 음악 전문케이블TV KmTV(채널43)의 아침 생방송프로 '오! 해피데이'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박장순은 이 프로에서 가수의 ㅈ도로 노래를 부르다가 잘 안될 때면 어색한 미소와 어눌한 말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든다.

또한 애틀랜타 올림픽때 레슬링경기 해설을 맡았던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씨도 KBS 2TV '웃음천국' 코메디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며 일반인들에게까지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다. 이 프로에서 김씨는 레슬링 교실을 통해 고유의 "빠떼루 받아야 한다"를 대사로 사용하며 레슬링경기 벌칙중의 하나인 빠떼루 시범을 개그맨들과 직접 보여 빠떼루 열풍을 안방 시청자들에게 까지 코믹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경욱, 조민선, 전기영, 심권호선수 등도 MBC '일요일일요일 밤에' 한판승부 코너와, KBS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하는 등 올림픽의 열기가 시청자들의 관심속에 안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은〉

목탄소리

불교계 문화현실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불교문화대제전이 40여만명(주최측 집계)이 다녀간 가운데 지난 14일 막을 내렸다.

단일 행사규모로는 최대규모로 치뤄진 이번 문화대제전은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속담을 다시한번 실감나게 했다. 크게 얻은 것 없이 뒷소리만 남기고 막을 내린 이번 행사가 불교의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되새겨 보자는 것이 행사를 지켜본 대중들의 생각이다.

전체 전시규모보다 더 큰 생활관의 시장바닥같은 난잡함, 진행미숙으로 인한 어수선한 행사장 분위기, 그리고 기대에 못미치는 관람객유치로 발생한 임대부스 상인들의 집단 항의등은 이번 행사를 한국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기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하겠다던 주최측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또한 불자들에게는 불교문화행사를 불사차원으로 함께 일구고자 하는 동참의식의 척박함과 낙후성을 다시 확인케 했다. 특히 생활관 일부에서 발생한 상인들의 집단항의사건에 대해 불교TV는 경성기획을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이상 도의적차원에서 일정부분 관리·점검의 책임을 회피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채 일부 상인들이 이탈하고 부스에 갖은 욕설로 도배를 함으로써 행사장을 찾아온 불자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갖게 한 사실 하나로도 이번 행사는 본래의 기획의도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했다.

불교계에도 대형의 다양한 문화불사들이 늘고있다. 이번 불교문화대제전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불교역사의 뿌리를 함께 공감하는 소중한 문화불사의 현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는 생활 속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동참자들에게도 함께 일구는 동사섭 정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반드시 짚어야할 불교계 현실이다.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회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分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칼라판

사진으로 보는 법보시용 경전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1
5백대원 석가모니불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2
지장경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3
장수멸죄경

어떤 중생이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오역죄를 범하였어도,
이 경을 자신이 쓰고, 읽고, 외우고, 지니거나, 남을 시켜 쓰게만 하여도,
그 죄업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살아서 선업을 맺지 못하고 악업만 잔뜩 지었다 해도,
명을 마친 뒤에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이 경으로 복을 닦으면, 업장이 소멸되어
죽은 뒤에 바로 인간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학림 엮음/신국판 칼라화보/값 각권4500원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현불뉴스

종무지도 감사 실시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0월1일부터 11월1일까지 한달간 종회와 합동으로 종무지도감사를 실시한다. 총무원은 이번 감사기간동안 교구본사와 특별분담금사찰 및 직영사찰, 관람료사찰 등 98개 사찰을 감사하며 모범사찰 지정 표창할 예정이다.

경남불교협의회 출범

경남불교협의회 창립법회가 지난 21일 창원호텔에서 경남지역 21개 시군구 주요사찰 대표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남불교협의회는 이날 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에 묵산스님(봉도사 주지) 상임고문에 성법스님(해인사 주지)과 철형스님(쌍계사 주지)을 추대했다.

제주종교협 23일 창립

지역 종교인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지역사회발전의 토대를 이루게될 '제주종교협의회(공동대표 혜연스님·정한진목사) 창립총회가 지난 23일 영산 등산로 주차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환경선언문' 발표와 함께 환경보호 등반대회가 실시됐다.

실천승가회 수련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지선·청화) 수련대회가 오는 10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과 파주 보광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련대회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전신인 정토구현전국승가회가 출범한 이래 결쳐온 10년동안의 한국불교운동을 평가하고 사업전개를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로 마련된다.

결손가정 후원자 모집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오는 10월3일 대전 장태산에서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간담회 및 야유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공유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042)633-1143

산재대책촉구 농성

"지난 14일 조계사에서 농성중인던 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해산하자 이번에는 한국통신노동조합 소속 114전화번호 안내 1백여명이 신종 직업병인 '정견완장애'에 대한 회사측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노인상담전화 개통 053-4277-114

"말벗 돼드릴께요"

대구불교복지회 5일 개설 밀양에 30평 주거공간 마련

불교계 최초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상담전화가 개설됐다. 대구 불교사회복지회(회장 지도스님, 대구 자비의 전화회장·동화사 포교국장)가 지난 5일 노인상담전화(대표 우재현 교수·053-4277-114)를 개설, 가정적·사회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주고 있는 것.

이로써 대구에는 청소년과 주부를 주된 대상으로 자비의 전화와 노인상담전화가 병존하게 됐으며 보다 전문성을 띄게 됐다. 노인상담전화는 지난 5월 한달간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3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교육에서는 우재현교수(대구대 산업복지학과), 김태영교수(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노인문제, 상담기법에 관한 심도있는 강의를 펼쳤다.

현재 걸려오는 전화는 매일 평균 2~3통 수준. 김영무 불교사회복지회 사무국장은 "홍보부족에다 전화하는데 익숙치않은 노인들의 특성때문에 아직은 걸려오는 전화가 많지 않다"며 "상담을 하다보면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담전화에서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각 구청으로부터 독거노인들의 명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또한 소외되거나 의질할 곳 없는 노인들의 안식처를 위해 경남 밀양에 30평규모의 주거공간도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지난 6월부터는 노인무료건강 상담(상담원: 이장백 내과의원 원장)을 시작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달성공원에서 우묵, 감주, 떡 등을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한편 노인상담전화가 속해있는 불교사회복지회는 지난 90년 2월 소년소녀가장을 돕기위해 설립된 '나눔후원회'가 발전한 단체. 95년 12월 현재 소년소녀가장 3백40명에게 2천1백5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이 단체에는 4백여명의 후원자와 40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10명의 사회복지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회장 지도스님은 "불교와 복지는 떨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식이 있으나 소외받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유료·실비양로원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불우이웃에게 좀더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복지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스님은 "현재 대구시내 22개 복지관중 불교계가 위탁운영하는 복지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스님은 오는 10월10일 수성구 범물동에 불교사회복지회와 연계성을 띄는 불교사회교육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사찰경제 실무자 윤리성 확보" 제기

선우도량 수련결사… 공동대표에 현봉스님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현봉) 제11회 수련결사가 지난 16.17일 남원 실상사에서 '미래사회와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40여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이번 수련결사에서 정견스님(심복사 주지)은 "사찰경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실무자의 윤리성 확보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정견스님은 "승려복지시책의 미비는 스님들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며 "복지차원에서 승려 개인의 경제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수련대회 첫날 개최된 총회에서는 조계종총무원 호법부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사퇴의사를 밝힌 혜담스님의 사표를 인준하고, 새로 현봉스님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정각회 의원8명 증가 두달새… 총 49명으로

제15대 국회정각회 의원이 지난 7월 결성 당시보다 8명의 의원이 새로 가입해 49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3일 봉행된 국회정각회 회장단 취임법회에서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한이헌 노기태(이상 신한국당) 권노갑 임복진 조찬영 정한용 최선영(국민회의) 박철언의원(자민련)이 새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국회정각회는 신한국당 26, 국민회의 13, 자민련 9, 무소속 1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현재 스스로 불자라고 밝힌 국회의원은 63명이다.

예비승려 217명 탄생

조계종 행자교육 회향

예비승려 2백17명이 탄생했다. 지난 14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이 실시한 제11기 행자교육원 회향식 및 수계식에서 남행자 1백 23명과 여행자 94명이 사미(니)계를 받았다. 지난달 30일부터 해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자교육에는 20명의 행자가 탈락했다.

한편 이번행자교육을 22일까지 진행하기로했으나 최근 해인사종무소와 강원간의 갈등으로 일찍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불교 재가단체 준비위 구성

불자연합·재가회의·대불청 등 24개단체 참가

18일 결성준비 간담회

범불교 재가단체 결성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8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한국재가불자연합 한국불교재가회의 등 24개 단체대표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재가불교운동의 활성화 방안'(이문옥·재가불자연합 공동회장) '미래불교에 있어 불교운동의 나아갈 길'(박광서·우리는선우 공동대표) '불교청년운동의 방향'(박희택·진각종 청년회장)을 주제의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불교재가단체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재일(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 김형균(재가회의 사무국장) 김세웅(불교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이건호(전국신도회 전사무총장)씨를 준비위원으로 위촉했다. 준비위는 이달안으로 추후 일정을 결정한다.

승·재가모임 21세기 불교연합 결성

준비위원장 법조스님

21세기를 앞두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위한 불교도들의 모임인 (가칭)21세기불교연합이 창립된다.

21세기불교연합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법조)는 지난 18일 창립준비총회를 갖고 회장에 법조(고운사주지)스님을 선출했다. 또한 창립위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창립법회를 10월25일 조계사에서 갖기로 결의했다. 이날 초대회장에 선출된 법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불교연합은 승려뿐 아니라 재가불자도 참여하는 불교연합체다"며 "각 분과위를 활성화시켜 불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세기불교연합은 문화예술, 사회복지, 포교신행 등 13개 분과활동을 펼치며 지역에 지부를 결성할 예정이다.

창일어린이집 수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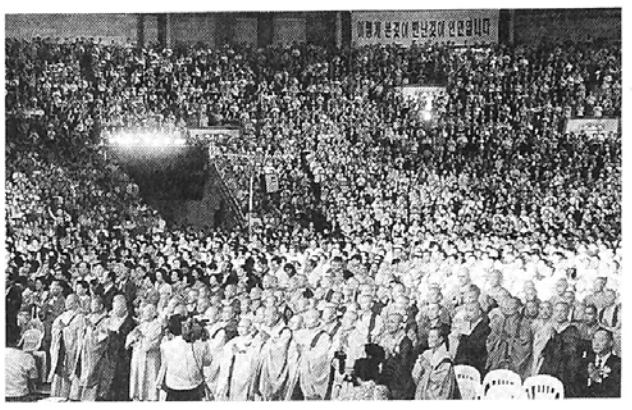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지난 17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창신동 소재 창일어린이집을 수탁받았다.

창일어린이집은 대지 74평, 건평 155.4평의 규모로 1백41명의 영·유아가 보육되고 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학산사회복지관, 길음1동 어린이집, 미아4동 어린이집에 이어 복지재단의 다섯번째 수탁체인 창일어린이집의 개원식은 11월초에 가질 예정이다.

구독신청: 737-0691



◇ '한마음 인생살이에는 고가 없다'는 주제의 대행스님 법문이 펼쳐지는 동안 대회장은 3만여 불자들의 법열로 가득찼다.

"일체가 나로인해 생겼으니 나로부터 풀어야 합니다"

대행스님 서울법회 3만신도 한마음

불확실해져가는 우리 미래에 확신과 함께 방황하는 젊은이에게 용기와 꿈으로 가득 채운 '법열의 한마당'. 지난 15일 서울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 3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성타(조계종포교원장) 월운(동국대역경원장) 태응(불교TV사장) 정락(용주사주지) 광우(전국비구니회장) 진관(진관사주지) 법산(동국대정각원장) 보광(동국대교수)스님 등과 서석재(국회정각회장) 송석구(동국대총장) 조해형(불교방송사장) 김종필(자민련총재) 이한동(국회의원) 이인제(경기도지사) 박철언(국회의원)씨 등이 참석했다.

대형 멀티큐브 2대가 설치되고 고품질의 특수 음향 조명시설로 장엄된 무대에서 2백여 한마음선원합창단의 장중한 합창으로 막이오른 이날 대법회는 대회사(신도회장) 축사(서석재 송석구 이한동 이인제씨)에 이어 대행스님의 '한마음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는 주제의 법문이 있었다. 1시간 30분여 동안 법문이 설해지면서 우뢰와 같은 감동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는 등 법회장은 법열로 가득 채워졌다.

대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체가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 나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급변하는 문화와 가치체계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을 바르게 이끄는 도리를 일깨워 주었다.

2부 특별공연은 국립국악관현악단(지휘 박범훈)의 연주와 사물놀이 공연이 힘찬 박수와 더불어공연돼 한국인의 '흥'을 한껏 만끽하면서 음악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회향했다.

법회모금 4천7백만원 파라미타에 전액기증

한편 이 자리에서는 4천7백27만1천8백60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은 이날 모금된 기금 전액을 지난 17일 오후2시 조계종 포교원의 파라미타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이 기금에는 한마음선원 소속 스님들이 모금한 1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회에 정치인들도 참석, 미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을 격려했다. 우로부터 김종필 자민련총재 이한동(신한국당) 서석재(정각회장) 김용환(자민련) 이인제(경기도지사) 박철언 구천서(자민련)의원.

야외에 멀티큐브 설치

한마음행사 이모저모

○…일요일이던 이날 잠실은 '종교열기'로 가득찼다. 불교 가톨릭 통일교의 대형행사가 열린 것. 이 가운데 한마음선원 법회의 경우 실내 법회장에서 다 수용할 수 없자 야외에 대형 멀티큐브를 설치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잔디밭 화면앞에 옹기종기 모여 멀티큐브를 향해 합장하고 박수치는 불자들의 모습은 치열한 구도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자리뜨는 사람 없어

○…이날 동참한 내빈들은 대행스님의 법문이 1시간 30분여 계속되는 동안 끝까지 경청. 흔히 일반 행사에서 정계인사들은 내빈인사를 마치고 법문이 시작되면 '바쁜 일'을 이유로 서둘러 퇴장하는 관례(?)를 깬 것.

한편 안양 한마음선원이 위치한 경기도의 이인제도지사는 "대행스님께 귀의하고 싶다"는 인사말을 해 주목받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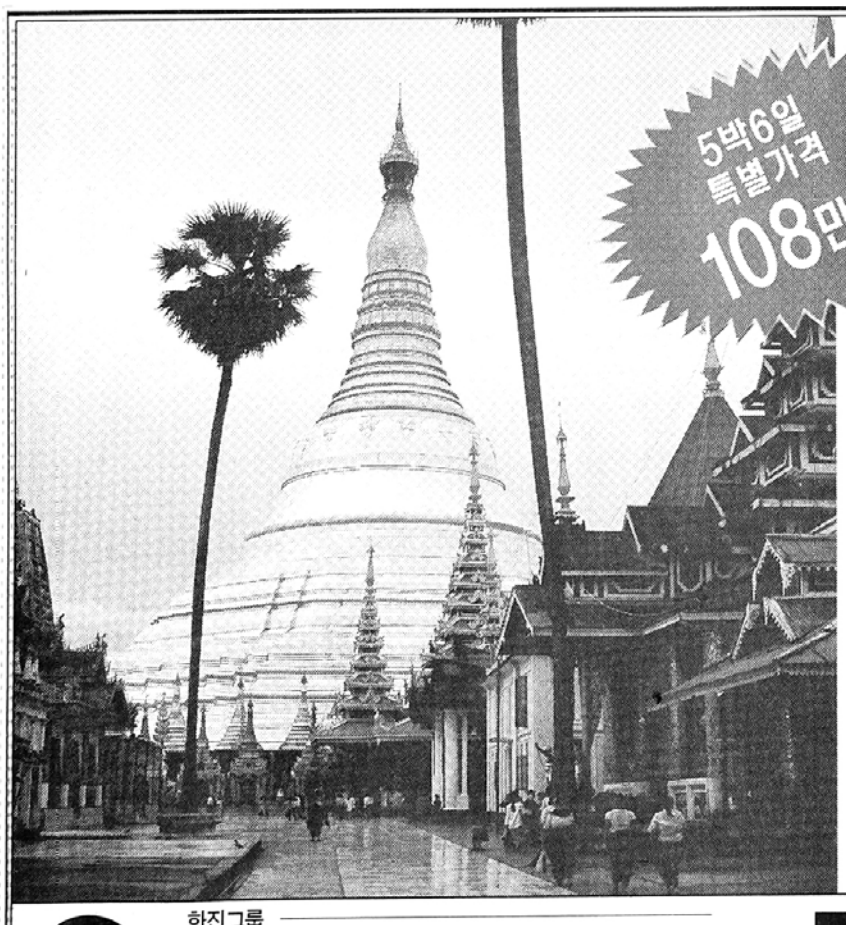
감격의 눈물 '글썽'

○…1부 법회에서 대행스님 법문에 많은 신도들이 감격에 겨운 눈물을 '글썽'이기도. 이날 제주를 비롯해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미국 캐나다 독일 서도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신도들 매너도 '만점'

○…이날 대법회는 법회규모도 컸지만 참석신도들의 질서의식도 대단했다는 평. 2부 특별공연이 이어졌는데도 3만의 참석자들은 미동도 않고 국악의 흥겨운 리듬에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 하기도. 이 분위기는 리셉션장으로까지 질서있게 이어져 "과연 '한마음 신도' 답다"는 감탄이 나오기도. 〈란〉

KATA 광고 심의필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02)779-6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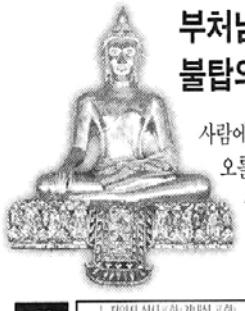


5박6일 특별가격 108만원

불기 2540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KAL 전세기 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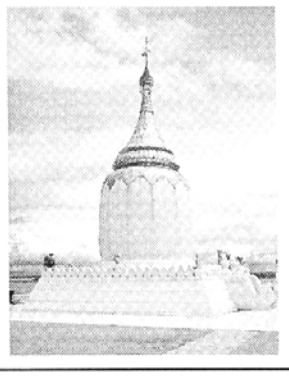
(관계당국 승인조건)
1차:96.11.1~11.6 2차:96.11.5~11.10



부처님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불탑의 나라 미얀마로 —

사람에게 손이 없다면 비록 보화가 쌓인 산에 오를 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심의 손이 없는 사람은 삼보(불·법·승)를 만난다 할지라도 얻는것이 없으리라
- 심지관경 중에서

우량조건
1. 전일정 식사포함(기내식 포함)
2. 왕복항공권 이코노미석, 전용버스 이동
3. 특급 및 일급호텔 이상 시설 (2인1실 기준)
4. 출발일 7일전 예약마감, 15명 이상 출발
5. 최고 1억원 보상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6. 전문투어 가이드 동행
※ 상기요금은 서울 김포공항 출발기준 요금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1일 대한항공편으로 서울 출발 양곤 향발. 미얀마 양곤의 영글라든 국제공항 도착 지넉공양후 호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중-기내식, 석-한식

2일 호텔에서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파간 향발. 도착후 미얀마 최대의 성지이며 2,500여개의 불탑으로 조성된 유적지 순례(쉐지곤, 쉐산도, 탓빈유, 아난다, 부파여, 틴로민로사원)
■HOTEL : 일급 HOTEL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3일 호텔에서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도착 시가잉 이동 (1시간소요). 100여개의 파고다 순례후 만달레이 귀환 쿠소도, 마하간다요수도원, 마하간무파고다 등 순례후 호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4일 호텔에서 아침공양후 항공편으로 양곤 이동. 전일 양곤지역순례 (마하위자야, 보타타웅파고다, 차욕탓지와불, 마하시수도원) 호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5일 호텔에서 아침공양후 오전 양곤의 상징인 쉐다곤파고다 순례. 오후 부지님 진신사리 전견 정대법회 (퍼바에파고다) 및 한.미 불교대법회 후 항공편으로 서울 향발
■HOTEL : 기내박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6일 김포국제공항 도착
※ 성불하십시요

한진그룹 한진관광
서울 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32-4 문체부 일반여행업8호

예약·문의 726-5763~6

후원: 대한항공 / BBS 불교방송
원: 미얀마 종교성 / 주한미얀마대사관

부산 : 463-2115 / 대전 : 252-2034~5 / 대구 : 426-6706~8 / 광주 : 228-0041~2 / 경주 : 745-3070~3 / 제주 : 42-7217

건강백세 ㉓

심장

심(心)과 심장(心臟)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받는경우가 가끔있다.

'심'이란 개념에는 심장으로 대표되는 순환기계통 전부와 인체의 성장하는 기능과 그곳에 깃드는 정신으로 표현되는 신명(神明)까지 포함된다. 심장은 장기로서의 심장 자체를 말한다. 흔히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심장자체가 기질적으로 나빠서 그 정도가 진단기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진단소견으로는 찾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심장은 태중(胎中)에서 생성되어 박동(拍動)을 시작 하게 되면 평생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고된 임무를 갖고있다.



기름진 음식·커피 과다 섭취
심근경색등 심기능 장애 초래

근래에 와서는 죽음의 정의가 뇌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적 개념으로는 심박동이 생명현상을 의미하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데는 이론이 없다고 본다. 심장의 펌프질을 통하여 혈액이 순환되고 영양과 산소 탄산개스의 공급과 운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장을 이루고 있는 심근(心筋)은 횡문근(橫紋筋)과 평활근(平滑筋)이 갖는 장점만을 고루 갖춘 가장 강인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 선천적으로 감염 또는 유전적 소인에 의한 판막이상 결손 혹은 불완전개폐로 생기는 기질적 장애는 소아들의 희생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수술을 통한 완치가 확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심장질환은 대부분 적절하지 못한 생활에서 기인된다고 본다. 특히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으로 적절히 소모치 못할 경우에는 코레스테롤이 높아져 고혈압이 되고 심장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순환(冠狀循環)까지 장애를 받아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는 수가 많다. 한의학에서도 후미(厚味)를 많이 섭취하면 심포(心包)의 활동에 지장이 있어 음식절제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심장은 박동을 주기능으로 하기때문에 여하한 장애도 심절(心絶) 즉 심장마비를 일으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심장은 심장신(心臟神)이라 하여 정신을 주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신적 영향이 심장박동현상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리라고 본다. 연속적으로 정신적 부담이나 자극을 받게되면 심인성(心因性) 심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자율신경계통에 기능적 문란(紊亂)이 오기 때문이다. 특히 커피나 어떤 특수약물의 과용, 남용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커피의 적당한 섭취는 심장활동을 자극시켜 적응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역시 지나친 섭취는 삼가해야 한다. 류마치스성 심근염(心筋炎) 혹은 섬유종(纖維腫)으로 인한 기능장애들은 감기(感氣)가 장기만성화(長期慢性化)되거나 완벽하게 치료되지 못하는데서 온다. 철저한 치료와 광소 운동을 통한 단련 및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觀音鳥가 되리라 ②

주부신행담


그림 · 이준석

'마음에 때가 끼면 안되지' 나는 더 열심히
관음정근을 했고 사업도 잘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암이라는 먹구름이…

나는 절과 정근을 함께 하며 깊어가는 겨울밤을 지켰다. 싸움이었다. 나와의 싸움이고 마구니와의 싸움이었다. 그러다가 쓰러진 새벽 나는 흉칙스럽게 생긴 귀신들이 나를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관세음보살' 만을 외치는 내 모습과 나를 공격하는 귀신의 긴 싸움. 그리고 "내가 졌다"라며 순식간에 사라지는 귀신. 나는 정신을 차렸고 그 비몽사몽간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 아침 나는 온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관세음보살님을 면 발치에서 만났구먼."

내 얘기를 듣고 스님은 이렇게 짧은 말씀만 해주셨다.

해인사에서의 3일기도는 내게 큰 힘이되었다. 스님은 먼발치라고 말했지만 나는 언젠가 가까이서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으리란 확신도 얻었다. 무엇보다 그 이후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안정됐고 잡념이 끼어들지 않았다.

서른살에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의류원단을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무모한 계산을 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업은 운이 따라야 하는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돈이 그냥 벌어지는 거냐. 돈복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구."라며 위로를 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나는 힘들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 무렵 나는 사업상 바쁘다는 핑계로 절에 갈 엄두조차 못내고 있었다. 몸시도 피곤하던 어느날 '그래 관세음보살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천수천안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던가.'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 주말에 해인사로 갔다.

음정근과 절을 함께하며 밤을 새웠다. 그리고 새벽에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비몽사몽간에 두개의 촛불이 하나로 모아지며 점점 큰 불덩이로 되는 것을 보았다. 화들짝 놀란 나는 "불이야, 불, 불!"하며 그 불덩이를 끌어 안았다. 꿈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현실이라 하기엔 너무 경황이 없는 짧은 순간의 일이었다. 다시 '보문품'을 소리내어 읽었다. 먼동이 터오는 그 고요한 시간, 독경소리는 내 입에서 나와 다시 내 마음으로 파고 들었다.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될거야. 돈이 벌어지면 마음이 더러워지는게 세상이거든. 그러니 마음에 때가 끼지 않도록 응진전에 앉아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또 읽었다. 스님께서 "이걸 일심으로 읽어 백독 천독 만독을 하라구"하시며 주신 책이었다. 저녁공양과 예불을 마치고 응진전에서 철야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내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셨다면 스님은 내게 그 힘을 잘 쓰는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해인사 응진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몇년간 사업은 잘 됐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또다시 나에게 불행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암입니다. 진전이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 상 행
〈서울 동작구 상도동〉

보문품을 더 열심히 읽고 수시로 정근을 하도록. 관세음보살님은 법계를 두루 보고 어루만지시는 분이시니…"

스님의 말씀은 새로운 힘을 주었다. 어쩌면 기도영험이란걸 나도 얻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했다. 안 풀리는 사업을 생각하면 기도영험은 더욱 간절했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정말 일이 잘 풀렸다.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바빠졌다. 그래도 스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보문품을 읽고 관음정근을 부지런히 했다. 그것은 마음에 때가 끼어 비윤리적인 사업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될 일이다.

♦ The mind of the Muni is accomplished in deed and word; Gotama, who is accomplished by his knowlege and conduct, let us (go and) see.

성인의 마음은 언행(言行)으로 나타난다. 고타마는 지혜와 도덕적인 품행을 통해 가르치는 분. 우리 함께 고타마를 뵈러 가자. 설산야차가 말했다.

♦ Come, let us (go and) see Gotama, who has legs like an antelope, who is thin, who is wise, living on little food, not covetous, the Muni who is meditating in the forest.

우리는 고타마를 뵈러 가자. 그는 영양(羚羊)처럼 여윈 정강이를 가졌고, 총명하며 소식(小食)을 해 음식을 탐내지 않고 숲속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있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 Having gone to him who is like a lion, a lonely wandering elephant, and who does not look for sensual pleasures, let us ask about the deliverance from the snares of death.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㊻

온갖 욕망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에게 가서 우리는 물어보자.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 Let us ask Gotama, the preacher, the expounder, who has penetrated all things, Buddha who has overcome hatred and fear.

열어 보이는 분, 풀어서 밝히는 분, 모든 사물을 간파하고 증오와 공포를 초월하여 눈을 뜬 고타마께 우리는 물어보자.

*Mara (빠알리어) 살인, 악이 높은 사람
*be accomplished (~에게 학업 · 기예 등을) 가르치다
*deed and word 언행(言行) (deed 행위)
*conduct (n) 품행, 행위
*envisage (n) 영감(靈感)
*thin (a) 여윈, 살이없는
*covetous (a) 몹시 탐내는, 탐욕스러운
*sensual (a) 육체적인 감각의, 관능적인
*pleasure (n) 즐거움, 쾌감
*deliverance (n) 해탈, 석방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 다이제스트

연꽃 ①

아나똘리 김 作


그림 · 심민섭

로효프는 집으로 돌아 왔다.

어머니는 침대 깊히 누워 있었다. 로효프는 임종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른 얼굴에 입을 맞추며 부재해 가는 육신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의 이별 후 다시 만난 어머니에게 술한 감격의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는 늙은 한국인이 앉아 있고 그 옆 의자 위에는 오렌지 그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로효프가 사온 선물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어떠세요. 나를 알아 보시겠어요?"

로효프는 고통과 희망을 느끼며 늙고 부어오른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아주 조금씩의 변화되는 표정을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늙은 부인은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로효프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마음 속으로 간청했다.

'여보세요. 나를 불쌍히 생각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외로움과 어둠과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한줄의 자루라기를, 한 조각의 세계를 던져 주세요.'

로효프를 아들로 인식하지 못한 듯한 어머니의 간청에 이어서 미지의 그 남자(로효프)는 마치 신이기나 한 것처럼 그녀에게 몸을 숙여 아직 살아 있는 그녀의 왼손에 무엇을 올려 주었다.

로효프는 고통속에 죽어가는
어머니 왼손에 한송이 연꽃을…

그것은 한송이 연꽃, 오렌지로 만들어진 연꽃을 닮은 한송이 조화였다. 그 꽃은 로효프의 화가다운 능숙한 손재주로 피어난 것이었다. 로효프는 오렌지의 껍질을 벗겨 한 장 한장을 꽃잎처럼 만들며 이미 그것은 오렌지가 아니라 막 피고 있는 연꽃을 떠 올렸다. 로효프는 그 꽃이 완성되자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 놓았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다.

로효프는 어머니에게 오렌지 연꽃을 선물하며 그 속에 은밀한 의미나 어떤 의도를 표현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에게 예술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의 무의식적인 표현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져 온 최초의 선물이었고 다가오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가 완전히 속수무책임을 입증하는 물건이기도 했다.

날이 밝았을때 로효프는 머리를 어머니의 침대에 댄 채 잠에서 깨어 났다. 눈을 뜨자 그의 시선에는 오렌지 연꽃을 감싼채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몸두하고 있는 어머니의 손이 보였다.

필자약력

아나똘리 김은 1908년 조선에서 농토를 잃고 만주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간 한국인의 후예다. 카자흐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의 문학은 소련에 사는 우리 동족의 모습과 러시아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해 준다. 〈다람쥐〉 〈동틀녘의 자두잎〉 〈사할린의 방랑자들〉 등의 대표작들은 한국인의 혼과 러시아문학의 전통을 융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생활속의 불교 ⑨⓪

아무 것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지하철의 노선도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1에1을 더하면 2가 된다는 사실도 누구나 믿는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과학적인 사실이 언제나 진리인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등식관계가 성립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또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라해도 영원불변일 수는 없다. 물 한컵에 물 한 컵을 더하면 물 두컵이 아니라 한 컵이다. 지하철의 노선도 때로는 바뀔 수 있다.

고로 우리가 객관적·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신념체계일 뿐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따지고 보면 지구의 자전속도가 24시간에 1회전이라는 것도 다만 그렇게 믿는 신념체계에 불과하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만인이 그렇다고 믿는 것도 세월이 흐르다보면 수정이 불가피해지거나 전혀 새로운 이론의 도전에 직면한다. 과학문명의 발달사를 보면 실은 과학이라는 것도 무조건 믿을 대상은 못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과학은 그냥 과학적이지 무조건적으로 믿어 버릴 그 무엇은 아니다. 고로 예컨대 서양은 과학적이고 동양은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서양 것은 믿을 수 있고 동양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는 없다. 또 객관적인 것은 믿을 만하고 주관적인 것은 믿을 바 못된다는 말도 실은 지성적인 언사가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천5백여년 전에 발견하시고 설파하신 내용에 대해 지금껏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수많은 석학,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긍정하고 믿고 따라왔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감탄하며 환호했다. 하자를 발견했다는 사람, 말씀이 틀렸다고 부정한 사람은 2천5백여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가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반론은 커녕 참으로 감탄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외쳐댔다. 말씀이 객관적이라거나 사실적이라는 토를 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곧 진리이니 '무조건 믿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지 오관을 통해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없으니 객관적이지도 사실적이지도 않으며 따라서 선뜻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라.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마음'을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

보이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을 믿기엔 왠지 스스로 비지성적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보이고 들리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도 하나의 신념체계일 뿐인 이상 지금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불신의 이유로서 합당치 않다. 더구나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확인없이도 덮어 믿어 온 우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유독 역대 선지식이 옳다고 가르치는 말씀만큼은 못믿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모순이거나 어리석음의 표현에 불과할것이다.

인구 1백명 중에 51명은 종교를 갖고 있고 나머지 49명은 비종교인이라고 한다. 누구나 다 종교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지만 종교를 갖는게 왠지 나약해 보인다거나 비지성적인 것 같다고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다만 어리석음에 해당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무명에 빠지게 하는 탐·진·치 삼독심중에 치(痴)- 어리석음이 가장 위험한 병이라고 하셨다. 그것은 믿음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요 믿음 없이는 결코 도에 이를 수 없다고 한다. 불자다운 믿음을 견고히 할 일이다.

협찬 : 민 하 늬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